

페미니즘과 군사주의에 대한 시론*

김정미 · 정추영**

군사주의(militarism)에 대한 페미니즘적 접근

이 장에서 이야기되는 군사주의는 인로(Enloe)의 저작들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고 정리한 내용들이 많다. 그녀는 국제정치학자로서 국지전의 사례들을 통해 여성이 전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이 과정에 민족주의와 군사주의가 결합하여 여성을 수단화하는 측면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주장은 단일민족국가로서 민족의식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우리 사회를 면밀히 조명할 수 있는 분석적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군사주의 이론, 군사주의적 현상으로 이해되는 것들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을 위해 먼저 군사주의에 대한 기존의 이해 방식을 알아보기로 하자. 군사주의로 지칭되는 현상들이 일반적으로는 군국주의로 설명되는데, 이는 'militarism'이 맥락에 따라 달리 번역되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가와 제도 중심의 사고를 드러내기도 한다. 사회의 체계들을 적대적 관계로 상정하며 경제적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유

기적 관계를 설정하는 맑시즘 내에서 군국주의(물론 맑스주의자들의 글인 아래의 인용에서는 '군국주의'라 지칭하였지만, 우리는 이 인용에 제시된 군국주의에 대한 설명이 내용상 군사주의로 대치하여도 큰 차이가 없다고 여긴다. 다만 성별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맑시즘 자체가 성별의 문제에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는 적대적 계급 사회에서 그 사회를 지배하는 착취 계급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대내외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만든, 반동적이고 호전적인 지배체계 및 조직 체계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것은 군국주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걸친 삶을 전반을 지배한다는 점이며, 이러한 가운데 중앙 집권적인 국가 권력을 토대로 군사적 조직 형태에 의한 '명령과 복종'의 원리에 따라 군사력을 사용하여 대내외적으로 호전적인 정책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 권력 자체가 군부 출신의 집단에 의해 관리되는가 혹은 민간인 출신의 집단에 의해 관리되는가는 상대적으로 사소한 문제이다... 군국주의가 제국주의 시대에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사회정치적 발전의 합법적 결과로서, 단순한 군사적 활동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군국주의는 "처음에는 군대 자체로서 나타나며, 다음에는 이것을 넘어서 군대조직망과 반(半)군대조직망으로 전사회를 엮어 내는 체계로서... 급기야 우리의 모든 공적, 사적 일상 생활 전체를 군대식의 사고방식으로 침식하는 체계로 나타난다." (철학대사전, 1989, 164-165)

이같은 이해가 군사주의에 대한 보편적인 방식이라면, 여기에 대해 여성주의적 관점을 개입시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보기로 하자. 한국에서 군사주의의 관점으로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군비증강을 통해 민족국가의 군사대국화를 우려할 때가 주를 이룬다. 한국에서 군사주의는 민족국가 내에서의 지배권력의 작용, 군사적 무장으로 이해되기보다 국가 간의 침략적 성향의 문제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상한 현상은 한국 내 군비증강이나 한국군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주의의 관점에서 논의되지 않는 점이다. 어떤 사회적 현상이 군사주의로 호명되는 것은 외국의 경우를 설명할 때에 한해 인정된다.

이러한 베트남전에서 한국군들이 그 곳 여성들을 강간했던 사실은 한국인의 군사주의적 행태로 이해되지 않는다. 한국군의 사례는 단지 개인남성들의 부도덕한 행위의 차원으로 이야기될 뿐, 여성에 대한 집단적·구조적·체계적 폭력으로서 공론화되지는 않는다.

이처럼 한국군의 성범죄에 대해 침묵하는 것과 달리, 일본군의 성범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현상에서 지적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군대가 여성을 성적존재이며 욕망의 배출구로서의 의미를 갖도록 조장함으로써, 일신의 자유를 애국심의 달성이라는 명분을 위해 구속받는 군인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고 군대자체의 존립을 이어나간다는 점이다. 그래서 한국군의 이런 성범죄에 대해 집단적으로 침묵하는 우리 사회는 집단적 폭력의 동원을 정당화하는 군사주의가 지배적인 사회라 부르기에 충분하다. 이 경우 군사주의가 정당화하는 폭력성은 남성성에 의해 행사되며 남성의 이익을 추구하는 남성중심의 폭력성이다. 이것에 의해 한국군의 성범죄는 범죄로서 부각되지조차 않는다.

두 예의 실상은 남성적 폭력성이 유발한 범죄이지만, 국가의 제국주의(혹은 패권주의) 성향에 의한 범죄로 거론되게 만드는 것이 군사주의의 작용이므로 이 점은 여성주의의 비판을 통해 바로잡혀야 할 부분이다. 기존의 군사주의라는 자로 짚 수 있는 현상은 부분적 사실일 뿐이다. 무엇이 군사주의가 남성중심적 이념인 것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가? 아마도 그것은 폭력성을 남성다움으로 인식하는 것의 문제이거나 성차별에 대한 인식결여일 것이다. 혹은 군사주의가 일상화되어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 발생한 의도적 효과일 수도 있다. 그리고 군국주의(軍國主義)로 불리며 국가 간의 침략적 성향, 군비경쟁 등에만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론적 논의도 성별의 관점에서 현상을 파악하지 않게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군대문화/군사문화/군국주의/군사주의 등으로 불리는 일련의 현상들에 성별의 관점을 개입시켜 해석해야 하고, 그것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 두 예를 재해석한다. 군사주의에 대한 기존의 이해에 여성주의적 관점을 개입시키는 것은 위의 베트남에서의 사례를 전혀 다르게 조망할 수 있게 해준다. 언급한 바대로, 이 사례는 남성군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군대가 이들의 다양한 욕구배출의 경로를 성관계로 집중시킨 결과 여성들이 군인들의 욕망의 배설구 역할을 맡아야만 했던 역사적 사례이다. 유사한 사례로서는 일본군위안부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쟁점화되는 과정에서 여성주의자들은 일본군위안부의 문제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군위안부제도를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을 군사화에서 발견하는 연구(강선미·야마시다 영애 1993)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연구는 성폭력의 범위를 집단적·구조적 폭력의 범위로까지 확대함으로써 한국인 군위안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일반적 폭력임을 말하고 있다. 즉 군사화된 사회구조에 의해 여성에 대한 집단적 구조적 폭력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을 주장한다.

하지만 군위안부 문제가 대중적 관심을 얻는 것은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조선여성에 대한 침탈 즉 국가 간의 범죄 중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죄라는 것을 강조할 때이다. 그래서 일본정부의 지시하에 군인들이 저지른 범죄는 군사주의(일반적으로는 군국주의)로서 논의된다. 이런 인식이 부각시키는 것은 국가이지 남성이 아니며 국가가 확장되고자 하는 과정에서 식민지 여성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식의 결론론적이며 우연적인 판단이 사건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군위안부 제도가 일본정부에 의해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으므로, 베트남에서의 한국군의 강간사례보다, 가시화시키기 쉬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성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성범죄인 두 사례가 사회적 담론(discourse)으로 구성되는 방식은 군사주의가 이해되는 과정이 성

별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결여한 채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며 군사주의의 작동이 성별의 관점을 배제시킨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욱이 군위안부 문제가 한국정부에 의해 일본에 제기되기까지 존재했던 피해자 여성들의 저항감과 가해자 남성들의 침묵,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한국군의 베트남 여성강간에 대한 침묵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역설적으로 아마도 그것은 국가 간의 범죄로 보여지는 현상이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violence against gender)을 핵심기반으로 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닐까한다. 나아가 이는 군사주의가 정당화한 전쟁이 성별의 이분화를 공격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나 이 현상의 의미를 단순히 국가 간의 범죄의 문제로 제한시켜 인식하게 하거나 개인 남성의 부도덕함으로만 이해하게 만드는 군사주의의 특징을 말해준다. 즉 군사주의는 무엇으로 일컬어지건 그것에서 성별의 관점을 배제한 채 인식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군국주의로 불리우는 현상들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군사주의'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은 어떤 차이를 낳는가? 우선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군사주의를 재정의하면, 군사주의는 폭력적이며 남성우월적인 남성성을 정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신념의 체계이자 제도이다. 군사주의를 내면화하는 성별은 남성에 국한되지 않으며 여성 역시 그 행위자가 될 수 있다. 또 군사주의는 군대/군사문화(일반적으로 전체 사회의 일부인 군대집단의 문화는 군대의 경험을 공유하는 남성들의 문화이다. 따라서 군대문화를 향유하고 유포시키는 주체는 남성집단에 한정된다. 전체사회문화의 하위문화로서 인식되고 그 문화의 직접적인 제조자가 남성에 한정되는 것은 여성이 그 문화에 포섭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힘들다)가 지칭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현상을 포괄한다.

이런 것들과 달리 군사주의는 군대의 하위문화만도 군비 경쟁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이념만도 아니며 이를 포함하는 보다 폭넓은 현상을 지칭한다. 우리사회에는 군사주의보다는 군대/군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폭력적 남성성의 정당화와 확산을 설명하는 일이 더 흔하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남성중심적 이념인 군사주의가 1세계와 3세계 남성들간의 위계 속에서 남성들도 피해자로 만드는 점과 여성들이 군사주의의 적극적 향유자가 되는 현상에 대해 깊이 있는 설명을 제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군대/군사문화보다는 군사화(militarization)와 군사주의를 도구로 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이 조장되고 묵인되는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군사화는 병력증강 및 군인의 정체성에 남성우월주의를 각인하는 과정이며 이것의 사회적 유포를 포괄하는 과정으로서의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군사화는 물질적 병력증강을 포함하여 정신적 세뇌에 이르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과정이다. 본 연구는 군사화의 결과 우연히 여성에 대한 폭력이 비의도적으로 저질러지는 개인적 측면보다, 그 과정이 의도적으로 여성 혹은 약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점을 중요시한다. 군사화 자체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고 묵인하는 가부장적 성별 정치학에 기반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군사화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고 정당화하는 과정이 아니라면, 군대가 개입된 역사적 사례에서 필연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자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다시 말해 집단적·개별적 폭력을 둘러싼 군사화의 결과 '우연히' 여성이 폭력의 주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군사화를 통해 구성되는 군사주의는 '남성우월주의적 성별정체성의 각인을 통해 공격성과 조직적 폭력동원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신념이자 제도'를 의미한다. 군사주의는 고정되고 완결된 결과물이 아니라 사회가 군대를 정당화하면서 군대식 문화를 수용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각인시키는 군사화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한국에서의 군사주의 역시 성별화된 군사화의 결과인데,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배경으로 여성/남성, 여성성/남성성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와 가치체계에 대한 신념이자 그것의 제도화이다(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성숙(1998)의 연구를 참고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녀는 한국의 총·효 사상이 군인을 통제하는 이념적 기제가 됨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

군사주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같은 접근은 국가나 민족이 우선되는 기존의 논의방식이 현상에 내재한 성별 정치학을 은폐한다는 여성주의적 인식을 반영한다. (군사주의에 대한 기존의 이론은 인로(Enloe 1994)의 견해에 따라 이해해 보기로 하자. 기존의 군사주의자들의 논의는 국가중심의 이론과 자본중심의 이론으로 구별된다. 이런 두 경향은 군사주의를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관계를 경제적 관계로 인식함으로써 군사주의의 맹아와 군사주의를 영속화하는 자원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논의에는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호기심도 결여되어 있다. 반면 페미니스트들은 그 무시된 영역들에서 군사주의의 맹아와 그것을 영속화하는 자원을 발견하며 군사주의를 만들어내고 재생산시키는데 여성성/남성성이 근간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권력에 관한 이들의 분석은 여성성/남성성의 조각이 군사주의의 결과일 뿐 아니라 군사주의의 원인이 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런 분석은 군사화/군사문화/군사주의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시도할 때 가부장적 성별정체성을 중심짓대로 활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군사화를 성별화된 과정으로 보기 위해서는 여성성/남성성의 개념적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 이것은 특정 시대적 배경에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고찰을 뜻한다. 즉 남성성과 군사주의 사이의 연계와 그 연계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논의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 문화에 속한 남성들이 국가에 의해 형성된 여성성/남성성의 개념을 가지게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군사주의의 작동

군사주의의 작동을 이해하기 위해 군사화의 필수적 논리인 여성성/남성성의 이분법, 한국적 매개인 징병제, 군부통치의 경험들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군사주의의 작동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군사화를 유발하

는 군사주의의 매개는 여성성/남성성의 이분법이다. 군사주의의 작동은 남성으로 하여금 남성우월주의를 각인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성 비하·성적대상화를 유도하는 것에서 발견된다. 이 방식은 군대에서의 사회화를 통해 전쟁부채의 시기에도 작동한다. 이는 군대가 남성들에게는 남성들이 그들의 우월성을 각인하는 동시에 여성을 성적존재로 폄하하는 장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군경험자들은 군대를 통해 많은 성지식과 음담패설을 배우고 여성을 오로지 성의 대상으로서 인식함으로써 여성비하의식을 당연시(조성숙 1998, 173)하는 것에서 그 점이 드러난다. 더욱이 한국의 병역제가 지원입대가 아닌 의무병제인 것은 이런 성향을 강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의무병제는 개인남성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남성우월주의를 각인시킨다. 지원병제인 미국에서 군인은 복지혜택이 탁월한 '직업'으로서의 의미를 갖지만(Enloe 1994) 우리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이제 군사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을 심화시켜 이해하기 위해 군사화의 제도적 과정으로서 군대가 한국의 맥락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자. 한국의 6.25내전과 군부통치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 군대 및 군부와 관련된 영역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은 끊이지 않았다. 내전 이후 지속된 분단체제에서 군대의 필요성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져 왔으며 대부분의 젊은 남성들이 공유하는 군대에서의 사회화 경험은 전체 사회로 이식되기에 충분한 시간과 강도를 유지해 왔다. 적대적 인간관의 각인과 초인적 극기를 요구하는 육체적 훈련, 상급자에 대한 절대복종은 군대에서의 사회화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였다. 남성들의 군대 사회화 과정과 군부통치의 장기화는 전체 사회에 군대식의 삶을 이식하는 충분한 토양으로 믿어져 왔다. 그래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조직 내 문화와 사회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현상이 쟁점이 될 때, 일반적으로 그것을 군대문화와 군부통치의 영향에서부터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군사주의는 권위주의적인 의사결정 방식과 폭력적 문제해결로 일상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위에서처럼 징병제, 군부통치와 군사주의의 관계를 검토한 것은 군사

주의가 남성독점적인 군대와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군부통치를 통해 남성적 폭력성을 정당화하고 사회로 유포시키는 점에 기인한다. 이는 한국의 군사주의를 이해함에 있어 징병제와 군부지배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군사주의에 대한 이해에서 경제적 관계, 제도적 차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식을 탈피하여 그 문화적 영향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징병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젊은 시절의 일정기간을 군대에서 사회화되도록 하며, 군대경험을 거친 남성들이 사회의 하위 문화를 구성하는 주체로 인정받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징병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 박정희 정권 이후 지속된 군부통치는 군대식 시스템이 사회발전에 효율적이라는 인식을, 반공주의와 더불어, 전국민의 머릿속에 심어놓았다. 즉 두 요소들은 군사주의가 일상문화 속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한국적이며 대표적인 매개로 판단된다.

군대는 본래적으로 남성의 공간으로 인식되며 군사주의가 군대를 직접적인 유포의 수단으로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군대가 없다면 폭력적 남성성과 군사주의의 정당화가 동시에 소멸될 것인가를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쉽게 해답을 결정하기는 힘든데, 폭력적 남성성과 군사주의의 결합은 단순히 군대에만 기원을 둔 것도 아니며 군부통치가 아니었다면 없어졌을 그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남성성과 군사주의의 결합은 국가, 민족, 생산양식과 같은 체제의 측면이 아니라 일상에 침투하는 문화적 양상을 고려하지 않고는 여성의 관점에서 이해되기 힘들다. 군사주의는 여성을 사물화시키고 대상화시키면서 작동한다. 대상화된 여성성의 반대편에는 주체로 구성된 남성성이 존재한다. 즉 군사주의는 이분법적 남성성/여성성의 조작을 통해 존재의 기반을 구성하지만 구성된 여성성/남성성을 통해 군사주의는 오히려 은폐된다. 즉 군사주의는 적대적 인간관계관에 기초한 폭력적 남성성과 남성우월주의를 매개로 남성성과 여성성을 구성하는 사회문화적 신념이지만, 여성성/남성성을 생물학적 남녀에게 본질적으로 내재한 것으로 이해하도록 조장함으로써 그 작동을 드러내지 않는다.

1) 이분법적 여성성/남성성의 각인

군사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분화된 여성성/남성성의 각인이 필수적이다. 실재하는 여성과 남성이 성별의 속성을 이분법적으로 내면화하지도 발현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전투를 임무로 하는 군대의 구성원들은 주로 남성들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처럼 전시체제하의 국가가 여성도 군입대를 의무로 하는 것과 같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전투에 필요한 공격성과 육체적 힘이 남성에게 있음을 전제한 사고이며 생물학적으로 정당화된 신념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생물학적 성차가 아니라 이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남성과 여성에 대한 문화적 신념이다. 군대가 생물학적 남성을 가부장적 남성성을 내면화한 존재로 사회화시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군대사회가 남성독점적이므로 남성중심의 문화를 형성하고 군부출신의 집권자의 통치방식이 남성중심적인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는 사회적 신념이 구성되는 과정에 대한 동어반복적 이해이다. 오히려 생물학적 남성들이 군대를 통해 남성우월주의적인 문화를 구성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그 무언가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생물학적 남성/여성집단이 반드시 남성/여성중심적 문화를 형성하라는 법은 없으며 만약 군대가 남성만의 조직이라서 남성중심의 문화를 형성한다면, 군대에서의 여성비율증가가 성평등문화의 구축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여군이 아 름답고 수줍어할 줄 아는 존재, 즉 가부장적 여성성을 갖춘 존재임을 확인시키는 대중매체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군대 내 여성비율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생물학적 성에 따라 가부장적 여성성/남성성을 내면화하는 문화를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심지어 군대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아진 서구의 경우, 군대가 가부장적 의미에서가 아닌 다른 어떤 여성이 '존재한다, 참여한다'고 인식되는 것의 허구성이 지적되기도 한다(Stiehm 1983). 군대에서도

여전히 여성은 가부장적 여성으로서의 면모를 보일 것을 요구받는 것이다. 그리고 군대를 통해 군사주의가 남성들로 하여금 가부장적 정체성을 구성하도록 할 때, 생물학적 남성들이 우월한 가부장적 남성성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구성하는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 진급하는 계급체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급자의 경험이 어떠하였든 일단 상급자가 되면 과거 하급자로서의 경험은 주변화된다. 이들은 상급자로서 과거의 경험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할 뿐 다시 그 경험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하급자의 경험은 상급자로의 진입을 위한 전제조건 정도로 인식되며 진지한 사고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일췌이다. 군대의 계급체제에서 하급자는 상급자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므로 하급자는 곧 여성화된 위치이다. 하급자는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위치이며 이는 가부장적 남녀관계에서 여성의 위치가 갖는 의미와 동일하다. 징집된 모든 군인들이 이런 하급자의 경험을 거쳐 반드시 상급자로 진급하는 것은 어떤 함의를 갖는가? 상급자가 되었을 때 하급자의 경험을 돌이키기도 싫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타자화시킨다는 것이 아닐까? 자신의 경험을 타자화시킨 결과 이들은 상급자의 위치만을 열망하며 곧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본적 전제인 남성주체를 구성한다. 남성들은 하급자의 경험을 거쳐야만 상급자가 될 수 있었던 자신의 과거를 직시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경험이 상급자로서의 그것에만 국한되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특히 자신의 경험을 듣는 타자가 여성일 경우 하급자로서의 경험은 무시되고 상급자로서의 경험만이 군인으로서의 경험으로 부각된다. 하급자로서의 경험이 이야기되는 맥락은 육체적 고통을 초월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로서의 남성성을 과시하고 싶을 경우에 한한다. 하급자로서 겪었던 인간이하의 경험은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는다. 이처럼 군대에서의 남성사회화는 생물학적 남성과 가부장적 남성성을 결합시키는데 이는 계급관계에서의 하급자로서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하급자로서의 경험은 성별관계에서 곧 여성의 경험과 유사하며 군대생활을 통해 남성은 하급자(여

성적 위치)와 상급자(남성적 위치)의 경험을 순차적으로 하게 된다. 하급자로서의 비참하고 굴욕적인 과거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므로 군대생활 내내 보호자 남성으로서의 우월성을 세뇌받음으로써 군인들은 문화적 남성, 즉 우월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게 된다. 이것이 군대사회화를 통해 남성들이 이분화된 여성성/남성성에 대한 확신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남성들이 남성우월주의에 기반한 폭력적 남성성을 내면화하는 것, 즉 이분법적 여성성/남성성을 각인하는 것을 통해 유지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군대는 권력과 결합하여 남성성/여성성을 이분화시켜 구성하는 사회화의 공간이다. 조성숙(1998)은 남성성/여성성의 조작이 폭력적이며 남성우월적인 군사주의를 유발함을 보여준다. 그의 설명대로 한국의 경우에도 초인적인 극기를 요구하는 군대생활을 이겨내게 만드는 정신적 장치는 남성우월주의의 내면화에 있다. 보호자로서 남성은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남성적이다. 군에서 강하다는 것은 곧 폭력과 연결되기 쉽다. 그러나 남성성에 대한 강조가 강하면 강할수록 폭력은 조장되고 묵인된다. 또한 성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것이 보호자로서 남성의 정체성을 조장하는 군사주의가 동시에 여성에 대한 폭력과 억압을 용인하도록 만드는 경로이다.

2) 이분법적 여성성/남성성과 민족성의 동일시

글의 시작에서 군사주의가 일상화되어 나타나므로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다. 이를 상기해 보기로 하자. 폭력적 남성성을 정당화하여 사회전체를 폭력성이 지배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군사주의는 일상화될 필요가 있다. 일상화된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의미를 되새기기 힘든 것처럼 일상화된 군사주의 역시 비가시적이며 은폐되기 마련이다. 특히 생물학적 남성이 가부장적 남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폭력적 남성성을 각인시키는 군사주의의 면모가 드러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성정체성의 조작이 군사주의의 주요한

기제임이 드러나는 것은 그 존립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실은 은폐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군사주의의 작동이 가장 잘 은폐되는 것은 이분화된 여성성/남성성을 민족성과 동일시하는 사고방식에서이다. 이분화된 남성성으로 인해 남성은 민족의 수호자로 간주된다. 이분법적 여성성/남성성에 기반하여 전투의 남성성을 강조하고 폭력적 남성성을 옹호함으로써 남성들이 자민족 여성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어진다. 남성을 민족의 수호자로 인정하는 이같은 사고방식은 민족성/민족주의를 외피로 하여 자신의 성차별성을 은폐하는 군사주의의 작동인데, 실상 전쟁의 예들에서 보았듯이 자민족 여성을 수호하는 남성이 타민족의 여성을 강간하는 범죄자이기 때문이다. 즉 민족의 경계를 넘어가면 성폭력의 행사자가 되는 자민족 남성을 여성의 수호자로 간주하도록 몰아가는 사회적 담론 구성에서 군사주의의 작동이 발견된다.

남성을 민족의 수호자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에서는, 앞서 예를 든 타민족 여성에 대한 강간과 매매춘은 타민족 남성의 소유물에 대한 훼손으로 간주될 뿐이다. 일본군에 의한 군위안부 문제는 '민족의 딸'에 대한 범죄로 이야기되지만, 기지촌 여성에 대한 한국남성의 매매춘은 거래 행위로 여겨진다. 타민족 남성에 의한 자민족여성에 대한 강간과 매매춘은 자민족 남성의 분노를 자극하며 강간자의 민족주의적 동기를 구축하지만, 자민족 여성에 대한 매매춘은 참을 수 없는 성욕을 지닌 남성성의 발현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런 인식의 차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족주의적 범죄와 남성성의 발현을 가르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런 사회적 불감증을 유발하는 것은 군사주의이며, '범죄'와 '어쩔 수 없는' 남성성의 발현을 나누는 기준 역시 군사주의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군사주의는 남성우월적인 정체성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의 동원을 정당화하는 신념이자 제도이다. 그러므로 한국여성이 일본군의 위안부였다는 사실은 한국남성의 우월성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경험이다. 그러나 이런 패배를

선불리 인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민족이라는 경계에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남성의 패배가 아니라 한민족의 패배로 위장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성의 우월성을 입증해야 하는 군사주의가 없었더라면 가능하지 않을 일이다. 그러므로 남성이 민족주의적 동기에서 타민족 여성을 강간하는 것(사회적 담론에서는 이 같은 남성이, 실재와 무관하게, 자민족 여성을 절대로 강간하지 않을 존재로 부각된다)과 남성다운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민족 여성과 매매춘하는 것, 이런 두 경험이 모순으로 부각되지 않는 사회적 담론구성은 군사주의의 작동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자민족 여성을 결코 성적 노예로 취급하지 않아야 하는 민족주의자 남성이 매매춘을 통해 여성을 사는 것이 용인되는 현상이 군사주의의 작동을 말해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민족주의'가 물질적인 이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민족주의는 남성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군사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요약하면, 여성성/남성성에 대한 인식에 민족주의가 개입하는 것은 이분법적이며 동시에 가부장적 남성성을 전통적 민족성의 현존으로 간주하게 만든다. 일상에 녹아 있는 민족전통이라는 회로를 타고 군사주의가 일상화되어 폭력적 남성성을 용인하도록 하지만, 민족성이 중간 엄폐물이 되어, 폭력적 남성성을 내면화한 남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군사주의에 속한 일이 아니라 민족주의의 작용으로 여겨지게 된다. 이처럼 민족성/민족주의를 개입시킴으로써 군사주의는 자신의 작동과 성차별성을 성공적으로 은폐한다.

* 이 글은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소모임 Peace Making의 페미니즘과 군사주의에 대한 연구논문 세 편중 한 편이다. 본문 중 군사주의와 페미니즘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을 저자들의 동의 하에 발췌하여 실었다. 이 글의 전문 및 Peace Making의 다른 논문 두 편은 참세상 '군사주의와 매매춘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 연대(Feminists' Camp)' 자료실에서 구할 수 있다.

**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소모임 Peace Making

짓밟힌 육체와 산산이 부서진 정신 *

3월 8일 여성의 날을 기해, 국제사면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매우 의미심장한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에서 추려낸 이 이야기들은 여성들에 대한 잔학 행위는 가정에서 일어나며 정부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거의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녀는 울면서 돌아왔어요. 서너 명의 군인들에게 강간을 당했다더군요. 그리고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도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왜 자기에게 그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코소보 수바 레카에서 온 한 여성, 1999

“그들은 젖은 스폰지를 제 목 아래 넣고, 저를 전기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반복해서 전기충격을 가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테이블로 데려가더군요... 막대기를 가져와서는 저더러 무릎을 굽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를 제 항문에 천천히 집어넣

었습니다. 갑자기 저를 밀어 강제로 그 막대기에 앉게 했습니다. 저는 피를 흘리기 시작했죠... 그들 중 하나가 와서는 저를 덮쳤고 강간했습니다.” -1999년 말 제이넵 아버시를 고문한 혐의를 받았던 터키 경찰들은 기소되지 않았다.

G양이 15살 때, 부모들은 농장 빚 청산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이웃남자에게 그녀를 시집보냈다. 남편은 그녀를 정기적으로 강간하고 구타해서, 결국 입원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게 했다. G양은 보호를 요청하려고 두 번이나 경찰서에 갔지만 집안문제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 20살 때, 그녀는 두 아이와 함께 도망쳤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와 남편은 그녀를 발견해 냈고, 그녀가 남편에게 몽둥이로 맞는 동안 그녀의 어머니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남편은 아이들을 데려가 버렸고, 그 후로 그녀는 아이들을 볼 수 없었다. G양은 미국으로 도피하여 피난신청을 하였다. 이민 검사관은 지난 2000년 G양의 변호사에게 G양을 엘살바도르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전쟁으로 파괴된 한 유럽국가 마을의 여성, 터키 경찰에 의해 구금되어 있던 어린 쿠르드족 여성, 미국에 난민신청을 한 중미 출신의 만신창이가 된 두 아이의 엄마. 표면적으로 이 세 여성들 간에는 성별과 고통을 당했다는 것 외에 별 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들은 각기 다른 나라, 다른 공동체에서 왔고, 그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남자들은 매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사례를 연결시키는 것은 세 여성 모두 학대의 희생자였다는 점이다. 세 여성은 모두 육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관계당국의 침묵과 무관심에 맞서야 했다. 이 세 가지의 사례에서 그들을 학대한 남성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세 사례 모두에서 국가는 여성들을 육체적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때문에 국가는 가해자가 군인이건, 경찰이

건 폭력적인 남편이건 간에, 이러한 여성들이 당한 고통에 대한 책임이 있다. 여성학대는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권리를 부정하고, 개인의 만족과 정치적 목적을 위한 여성 육체의 폭력적인 사용을 정당화하는 전세계적인 문화에 기인한다. 세계의 여성조직과 인권 활동가들은 최근 수십년 간 학대를 예방하고 근절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여성의 평등을 쟁취하기 위해 용감하게 싸워왔다. 많은 나라에서 그들은 엄청난 성과를 이뤘고, 국제적으로도 인권개념의 논쟁을 뒤바꿔 놓았다. 그러나 전세계의 여성들이 그 권리를 주장하여 이룬 성과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여성들은 남성보다 적게 벌고, 더 적은 재산을 소유하며, 교육, 고용, 보건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진다. 이미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차별은 여성의 완전한 정치적 사회적 평등을 계속해서 부정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이러한 차별을 먹고 자라며 그것을 강화한다. 여성들이 구금상태에서 학대를 당했을 때, 여성들이 '전쟁 전리품'으로 무장세력에게 강간을 당할 때, 여성들이 가정에서 폭력의 위협 앞에 놓일 때,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명백히 드러나 작동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종, 민족, 성적 지향성, 사회적 지위, 계급, 연령을 기반으로 한 차별과 복합되어 작용한다. 그러한 중층적 차별은 여성의 선택을 더욱 제한하며, 폭력에 대한 취약성을 증대시키고, 그들이 보상을 받는 것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든다. 어떤 경우 이러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가해자들은 경찰, 교도관 혹은 군인과 같은 국가공무원이며, 정부와 싸우는 무장조직의 구성원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폭력은 그들이 가족의 한 사람이든, 공동체나 직장내의 한 사람이든, 그들과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다. 여성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 남성들의 권력 앞에서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폭력의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여성이 구금상태에서 고문당한 수없이 많은 사례들을 기록해 왔다. 무력분쟁 시, 성폭력이 전쟁 무기로 조직적으로 사용

되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1997년 이래로 국제사면위원회는 개인에 의해 저질러진 학대사례를 조사해 왔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인권의 틀을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는데 적용하고, 그 폭력적인 행동이 국가 관료들의 교사로 국가공무원에 의해 저질러진 것인지는 개인에 의해 저질러진 것인지는 국제 인권법 하에서 국가가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구금상태에서든, 가정에서든 여성에 대한 폭력이 학대를 낳고 있는 환경을 조사한다. 학대를 없애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제사면위원회는 국가가 여성에 대한 모든 가학행위에 대해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일어났는지, 누구에 의해 저질러졌는지 상관없이 책임을 지게 했다.

가정과 공동체에서의 여성 학대

"찾김에 날린 주먹 한방에 부러진 이빨, 악랄한 공격으로 부러진 다리, 한밤중에 공포의 비명 속으로 사그라져 간 생명. 케냐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이 모든 가정폭력의 광경이 고통스런 이야기들로 끊이지 않고 있다. 불구가 된 빈곤한 희생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집 없는 아이들이 범죄의 길로 빠져들고, 수치심으로 울부짖는 상처받은 마음들이 점점이 산재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사망자의 수를 세고 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치명타를 맞고 죽어가는 희생자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 권위있는 기자상을 받은 기자의 글을 요약한 것이다. 여성의 학대에 관한 이야기가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학대를 없애는 데는 시간, 자원, 상상력, 정치적 의지 그리고 여성의 권리에 대한 확고한 헌신이 필요하다. 여성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 전세계의 국가들은 이러한 학대를 간과하고, 은폐해 왔으며, 묵인하고, 그것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지속되도록 용인해 왔다. 가정과 공동체 내에서의 폭력은 매년 수 백만 여성의 목숨을 앗아간다. 2000년 6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5년 전 제4차 세계여성회

의 이래로 여성에 대한 폭력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었으나, 그러한 폭력은 사실상 계속 증가해 왔음을 인정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차별로부터 기인하고 차별을 강화시킨다. 국가가 여성이 교육, 주거, 식량, 고용 그리고 공식적인 국가권력에 대한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지 못한 것은 여성의 학대에 대해 국가가 갖는 책임의 또 다른 측면이다. 계속되는 여성 차별은 여성들이 의사결정에 적절히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여성의 목소리가 정부의 모든 수위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여성이 학대에 반대하고 차별을 없애는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이다.

빈곤하고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여성들은 특히 학대에 노출되기 쉽다. 많은 경우 인종적, 성차별적 정책과 관행은 그들이 경험하는 폭력의 정도를 심화시키고, 이후의 폭력에 대해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부정하는 사회, 문화적 규범은 여성을 더욱 육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에 맥없이 무너지게 만든다. 여성에 대한 차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부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가정: 그 공포의 도가니

“예외 없이 여성에 대한 가장 큰 폭력의 위험은 ‘낮선 이로부터의 위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알고 있는 남자 -종종 남자 식구나 남편- 들로부터 온다.... 주의를 끄는 것은 그러한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얼마나 유사한 양상을 띄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최근의 주요한 연구 결과이다. 가정 폭력은 실로 지구적 현상이다. 각국의 양상은 다양하지만, 고통의 경험과 원인은 전세계적으로 비슷하다. 콩고민주공화국(전 자이레)에서 온 ‘K’는 한 육군장교와 결혼했는데 그는 그녀를 정기적으로, 심지어 아이들 앞에서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학대를 했다. 그는 반복해서 그녀를 강간했고, 그녀에게 성병을 옮겼다. 그는 또한 종종 그녀를 총으로 위협하곤 했다. 한번은 그녀의

이빨을 부러뜨리고, 턱을 탈구시키고, 눈을 심하게 때려서 몇 바늘 꿰매게 만들었으며, 결국 그녀는 코, 목, 머리, 척추, 엉덩이와 발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해야 했다. 결국 미국에 망명을 요청한 ‘K’는, 그녀의 남편이 지배 집단과 연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콩고에서 여성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 심사관은 그녀가 겪은 학대를 ‘잔학행위’로 규정하였으나, 이민 심사법정이 내린 결정대로 그녀의 망명신청은 기각하였다.

과거, 가정 내 여성에 대한 폭력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아니라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어 왔다. 오늘날 국제 사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국가의 책임이 따르는 인권의 문제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세계 여성의 최소 20%가 신체적으로 학대받았고, 성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미국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은 15초마다 구타당하고 매년 70만 명이 강간당한다. 인도의 관련 연구들은 결혼한 여성의 40% 이상이 요리나 청소가 맘에 들지 않는다거나 의처증 등 다양한 이유로 남편들에게 발로 차이고, 언어맞거나 성폭력을 당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98-99년 사이 케냐에서는 최소 60여 명의 여성들이 가정폭력으로 사망하였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여성의 35%가 남편에게 구타당하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수백만의 여성들에게 가정은 안식처가 아니라 공포의 도가니이다.

가정폭력은 여성의 육체적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그것은 몇 년간 계속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악화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당장의 상처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신체적 정신적 효과는 축적되어 나타나고, 폭력이 멈췄을 때도 지속될 수 있다. 가정폭력은 위협적이고, 품위를 떨어뜨리며, 굴욕감을 준다. 그것은 자아 존중감을 파괴한다.

가정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결혼지참금 관련 폭력은 아시아 여성 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최근 주목을 받았다. 지참금과 관련하여 구타당하거나 타죽고, 그렇지 않으면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은

인도 여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1998년 6,929명의 여성이 자살로 사망했다는 인도정부의 보고서를 통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모든 계급, 인종, 종교, 연령의 여성은 그들과 삶을 공유하는 남성들의 손에 달린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여성집단들은 가정 폭력에 특히나 더 취약하다. 여기에는 가내 노동자와 강제결혼한 여성들도 포함된다. 국가가 이러한 행동들을 예방하고, 기소하고,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폭력은 확대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법원의 남성적 편향

인도에서 아동 결혼을 없애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촌락 개발 노동자 반와리 데비는 1992년 9월 22일 라자스탄의 바테리 마을에서 높은 카스트의 5명의 남성들에게 강간을 당했다. 경찰은 처음부터 반와리의 진술을 기록하기를 거부했고, 그녀는 의료 검진조차 거부당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항의가 빗발치자 정부에 의해 실시된 조사는 그녀에게 엄벌과 유도심문을 당하게 했다고 한다. 그 조사에서 그녀의 진술은 사실임이 밝혀졌고, 그 다섯 남성들에 대한 고발장이 발부되었다. 그 소송은 1994년 11월 하급법원에서 시작되었다. 1995년 11월 나온 판결에서 법정은 그녀가 경찰과 의료 검사를 받는 것에 대한 소송을 늦게 제기한 것은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은 높은 카스트에 있는 남성들이 낮은 카스트의 여성을 강간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다고 보았다. 그 남자들은 집단강간죄에 대해 무죄로 방면되었다.

판사들도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한 부분이며, 사회적 가치와 도덕적 규범과 편견을 반영한다. 편견을 넘어서는 것은 사법기관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인권문제로써 여성에 대한 차별과 여성 폭력에 대한 이해부족은 종종 소송이 수행되는 방식에 있어서, 편견

에 찬 결정과 판정으로 귀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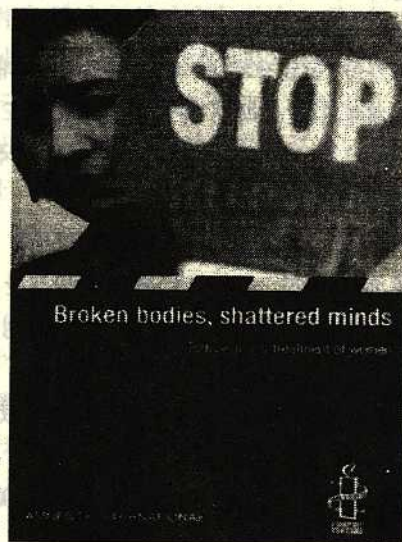
1999년 2월 이탈리아에서 대법원은 18세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장사의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었다. 희생자가 공격 받을 당시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것을 안 대법원은 이렇게 말했다. "청바지는 입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면 부분적으로라도 벗길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 그리고 만약 희생자가 사력을 다해 싸웠다면 그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법정은 이것이 그녀가 섹스에 동의했다는 의미라고 판단했으며, 다른 항소심의 사례를 참고해 볼 때, 강간이라고 증명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 이 글은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짓밟힌 육체, 산산이 부서진 마음: 여성의 고문과 학대, 2001/3/8 (ISBN:0 86210 2960, ACT 40/001/2001)를 요약한 것이다.

출처: 「인터내셔널뉴스」 127호 (2001/3/26)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01년 3월호



보고서 전문은 다음의 주소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web.amnesty.org/ai.nsf/Index/ACT400012001?OpenDocument&of
=THEMES|WOMEN

과테말라 젠더 폭력*

빅토리아 리치**

최근 보스니아 내전에서 수많은 여성들에게 강간을 저지르는 젠더 특수적 폭력에 대해 세계적 관심이 모아졌다. 다음의 과테말라의 사례는 이 범죄의 또 다른 측면들 즉, 반란군 진압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젠더 특수적 폭력에 관해 설명해 주고 있다.

국가의 공포정치와 억압 행위들은 대개 젠더 특수적이지만, 전쟁과 분쟁에서의 이러한 측면은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언론은 물론이거니와 사회단체 및 인권 조직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에서 간과되어왔다. 과테말라 또한 예외는 아니다.

전쟁 및 분쟁 발생시의 법적 원칙을 성문화한 제네바협정은 국제적, 혹은 국지적 전쟁이나 분쟁이 발생한 모든 상황에서 젠더 특수적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성문화된 '통념적인' 전시법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권리가 조직적으로 침해되는 경우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과테말라 또한 예외가 아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과테말라는 1980년대, 그리고 정도는 덜하지만

1990년대에도 이 나라 전역을 몰아친 반란군 진압을 위한 의도적 전략으로 젠더 특수적 폭력이 사용되었다. 생존자의 증언과 수많은 무덤 발굴로부터 나온 법정 증거들은 과테말라의 억압의 역사에 추가되어야 할 또다른 진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고찰해 봤을 때, 과테말라에서의 젠더 폭력은 무력 분쟁시에만 발생해 온 것이 아니며, 현재 또한 그렇다. 흔히 과테말라 여성들이 가족과 사회의 중심에 있다고들 한다. 그러나 이 나라의 문화적 '규범'은 여성들에 대한 실질적인 존중은 물론 어떠한 육체적, 정신적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과테말라 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일이 횡행하다. 젠더 특수적 착취, 차별, 폭력, 억압이 법적, 문화적, 도덕적 규범과 일상적인 사회 작용 속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젠더 폭력이 널리 퍼져있는 역사적 현상으로 여겨지고 전쟁과 분쟁, 그 자체의 본질로 치부되면서 여성에 대한 범죄는 무력 분쟁이 발생할 경우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성폭력이 정치적 폭력의 맥락에서 가해질 때는 시민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와 다르다는 것이 설명될 필요가 있다.

모든 강간의 사례들에는 정치적인 동기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과테말라는 명백히 정치적 승인을 통해 개인적이고, 탈선적인 범죄 행위를 집단적인 목표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하나의 정상적인 사회 통제 행위로 둔갑시키고 있다. 과테말라에서... 그 목표란 반란군 진압을 위한 심리전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적 반대자를 전멸시키는 것이다...

군사 작전

경찰, 군인, 민병대에 의해 자행된 여성의 몸에 대한 공격은 적들의 저항력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며, 결국 파괴하는데 목적을 둔 군사 작전이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할수록, 가해자는

자신 받은 명령에 더 충실할 수 있다... 과테말라 여성은 국가의 묵인 하에 자행되는 지속적인 성폭력의 위협 하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의 성폭력 경험은 이 나라의 상황과 분리될 수 없다. (에드리안 애론 외, 「중미 피난 여성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중미 건강권 위원회 (CHRICA), 미국심리학회 총회 발표문, 뉴올리언즈: 1989년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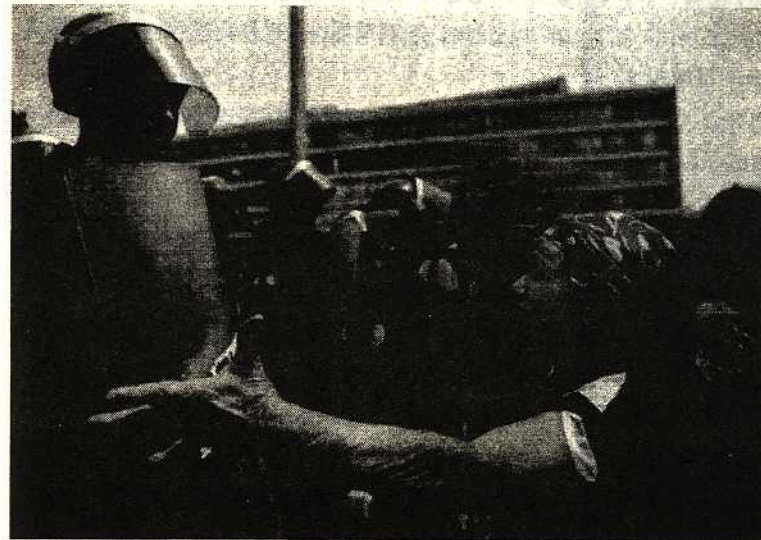
성폭력이 매우 널리 유행하고 묵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연구는 1982년 거의 모든 과테말라 피난 여성들이 느낀 압도적인 공포는 다름아닌 강간의 공포였다는 것을 발견했다. 산악 고지의 전투 지역에서는 모든 군인들이 마야족 여성들을 겁탈하고 있으며 “11-15세 사이의 여자아이들 중에서 강간당하지 않은 아이를 찾기가 힘들 정도다. 심지어 7살의 여자아이가 강간을 당하기도 했다”라고 한 관리가 말했다.

바하 베라파스 산악 구역의 라비날 지역에서는 반란세력 진압 전술에 관한 사례 연구가 있었는데 여성들에 대한 젠더 폭력의 또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982년 7월 프란데 산체스 촌락 주민들이 대량 학살되었을 당시 12-14의 어린 여자아이들이 처형되기 이전에 선별되어 강간을 당했다. 과테말라 법인류학팀(Forensic Anthropology Team)은 프란데 산체스 지역 마야-아치족 130명이 매장된 대규모 무덤에서 40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들의 시신을 발견했다.

생존자 후안 마누엘의 증언:

군인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모든 사람들을 끌어내서 나의 여동생 집으로 데려왔다. 오후 3-5시 경 사람들을 이곳 누이동생 집으로 집결시키는 작업이 모두 끝나자 군인 한 명이 사령관에게 승락을 요청하며 12-14살 사이의 예쁜 여자아이들을 골라냈다. 그리고 선별된 여자아이들을 바로 저기로 데려가 강간을 했다. 강간은 여러 차례 되풀이되었다.

선택 강간을 당한 가난한 가정의 여자아이들 중 3명이 살아남았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풀려났다. 민병대와 함께 이 곳에 온 군인들은 콘쿨 지역 출신이었다. 민병대는 그 어린 여성들을 잘 알고 있었다. 가난한 가정의 여자아이들은 군인들에게 무엇이든 할테니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간청을 했다. 이것이 이 여자아이들을 살려준 이유였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자아이들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해 알 수 있게 되었다.

...나의 형수 중 한 명도 강간을 당했고, 내 친동생을 집밖으로 끌어내자마자 바로 그녀를 강간했다. 이들 두 명의 시신이 대규모 매장터에서 발굴되었다.

리오네그로 촌락에서는 군인과 민병대가 산꼭대기까지 여성들을 끌고 갔다. 그리고 남성들은 강제로 춤을 추게 하면서 여성들에게 “게릴라 들하고도 이렇게 춤을 추었나보지?”라고 물었다. 산을 오를 때 임신한 여성에게도 쉬는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 걸음을 멈춰 설 때면 민병대와 군인들이 곤봉을 어깨에 내리치면서 “소들아 빨리 움직여!”라고 소리질렀다.

파콥속 포르테수엘로라는 지명으로 알려진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대부분의 여자아이들과 여성들이 군인과 민병대에 의해 강간을 당했고, 그 이후 177명의 여성들이 살해당했다. 생존자인 아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군인과 민병대는 어린 여자아이들을 겁탈하고 우리를 강간하기 시작했다. 내 경우 단 두 명의 군인만이 강간을 했는데, 거기에 있던 나의 할머니가 나를 보호했기 때문이다. 모든 여자아이들이 강간을 당했다. 나는 강간당하고 생존한 유일한 사람이다. 그들은 나를 강제로 놓쳤고, 일이 끝나자 나를 소코크로 데려갔다. 우리가 견고 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를 서로 얘기했다.

사례 연구

그러나 라비날 지역은 과테말라 분쟁에 있어서 이러한 폭력의 유형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국제사면위원회가 입수한 증언 중에서 말타 베라파스 구역 치렌키체 촌락에 사는 마야-케치족 17살 여자아이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

군인들이 (1982년 4월 7일에) 왔고, 우리는 산으로 가서... 숨었다. 일군의 군인들이 우리를 뒤따라 왔는데... 그들은 마चे테(machete,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벌채용 칼-옴긴이)를 가지고 나를 마구 찔렀다. 나를 강간하고 땅에 내팽개친 다음 머리, 가슴, 손 등 다치는 데로 찔러댔다.

1982년 7월 우에우에테난고 구역 핀카 산 프란시스코에서는 군인들이 초토화 정책을 사용하면서 추즈의 촌락을 완전히 파괴했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모두 학살했다. 당시 대량학살에서 ...

“...헬리콥터에서 내려선 관리들의 지시에 의해...윤간(여성들을 학살하는 군인들에 대한 과테말라군의 상례적인 보상책), 고문, 처형, 그리고 식인행위가 자행되었다.”

[로버트 M. 카맥 편, 『폭력의 결과: 마야 원주민과 과테말라 위기』, 오클라호마대학 출판부: 노먼·런던, 1988]

국가가 테러를 조장하는 환경에서 보호, 원조, 피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정상적인’ 시절에도 불가능했던 여성들에게 선택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시에 흔히 남성들이 자행하는 폭력이 국가를 보존하고 책임지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것과 달리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비가시화되고 여성에게는 수치의 근원이자 정복의 신호로 간주된다...

[샬롯 번치, 니암 레일리, 『책임을 요구하기: 전세계적 캠페인과 비엔나 여성 인권 법정, 뉴저지·뉴욕: 럿거스대학 세계 여성 리더십 센터·유엔 여성발전 기금, 1994]

정식적으로 말하자면 젠더 특수적 폭력 행위는 반인류적 범죄이다. 왜냐하면 젠더에 기반한 잔인한 폭력과 탄압이기 때문이며, 그것은 선별되고 표적이 분명한 박해이다. 희생자들은 그들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택된다.

전세계 세계 인권기구들과 조직들의 책임은 오로지 여성에게만 가해지는 수많은 인권 침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성의 인권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특별히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 기체들이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체들을 통해 과테말라 전시 범죄를 적용해야 한다. 앞으로 있을 유엔 과테말라 ‘진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직적인 범죄 유형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최근 엘살바도르 진실위원회는 조사와 증언 채취를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대한 비판마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여성들은 자신들이 고통 당한 특수한 폭력에 대해 안전하고 정의가

신봉되는 환경에서 증언할 수 있어야 하며, 젠더적인 시각에 입각한 과테말라 분쟁의 진실한 역사가 기록되어야 한다.

[「다시 일어나는 제3세계(Third World Resurgence)」 74호, 1996년 가을]

- * 출처: 제3세계 네트워크(www.twinside.org.sg)
- ** 빅토리아 리치는 과테말라에서 2년간 살았던 연구자이자 저술가이다. 최근 과테말라 인권위원회에서 「과테말라 분쟁에서의 반영성적 젠더 특수적 폭력의 사용」이라는 주제로 보고서 전문을 발간할 계획이다.

신의 이름으로, 보수주의 아멘.

세계화 시대 반여성적 보수주의

엄혜진*

1.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최근 한 외신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의 한 여성이 남편이 아닌 남자와 성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가족 채찍으로 100대를 맞았는데, 태형 처벌을 내린 1심 판결에 만족해했다”고 한다. ‘1심 판결에 만족해했다’는 이 여성의 소감은 그녀가 법원으로 가게 된 사정보다 더 아절하다. (외간 남자에게 눈길만 돌려도 염산 세례를 받을 지경이니 죽지 않은 것만도 다행스러울 수밖에!) 여성에 대한 탈리반의 끔직한 만행들에 대해 너나할 것 없는 분노의 공감들이 모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극렬 근본주의가 마치 나치 시대의 유대인 인종학살이나 중세 시대의 마녀사냥이나 비견될 만큼 비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일 게다. 직장에서도, 매스미디어에서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느니, 범세계적 보편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느니 외쳐대니, 목적어가 무엇인지는 늘 의문이지만, 이토록 극단화된 현상들이 동시대에 공존한다는 것이 어쩐지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것이다. 여기에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시대의 분절화된 환상적 이미지들이 개입되어 있다. 특히 여성의 삶에 대해서.

세계화 시대에 여성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이 제자리걸음이거나 혹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수많은 여성/인권 단체들의 보고서를 굳이 길게 인용하지 않더라도 여성에 대한 보수주의적 폭력과 착취는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들에만 한정된 먼 나라 얘기만은 아니다. 화장실조차 제대로 가지 못하는 자유무역 지대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나 국가의 은밀한 지원으로 국경을 초월한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곳들, 군사 작전의 일환으로 여성에 대한 강간이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그 곳들에서 수많은 탈리반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권력이든 이권이든, 목적 달성의 유효한 매개로서 여성을 더 속박하고, 더 착취하라는 경전을 손에 들고.

문제는 이들 각각이 서로 아무런 상관없는 것 인양 분절적으로 인식되거나, 탈리반보다 못할 것도 없는 자신들의 음모와 획책을 짐짓 숨기고 있는 자들의 수사적 ‘인권’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이 시선에 고정되거나 빠져나가지 못할 때 우리는 여성들이 얼마나 각기 다른 상이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그러나 그 각기 다른 상황이란 사실은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물망 같은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종종 잊게 만든다. 그럼으로써 투쟁하는 여성들의 현실이 개별 사안으로 고립되고, 지원을 넘어서는 전략의 틀짜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닐런지.

이 글은 탈리반에 맞선, 혹은 이슬람근본주의자들에 맞선 여성들의 투쟁에 대한 기록을 살피면서 가져야 할, 예컨대 통찰적 태도에 대한 일종의 프롤로그이다.

2. 종교근본주의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현상이다

1) 탈리반이란 괴물은 누가 탄생시켰나?

1994년 중앙아시아 일대의 무장그룹들에 의해 약탈되던 무역 호송선을 보호하기 위해 파키스탄 정부에 의해 임명되면서 세상에 처음 알려졌으며 1996년 겨울 수도 카불을 점령하여 현재 아프가니스탄 영토

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탈리반에 대한 연대기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던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소련의 침공 이후 반소 무자헤딘 세력들간의 지배권 다툼에서 탈리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공산주의'에 대해 '극렬 이슬람 근본주의'를 처방전으로 사용했던 미국이 존재한다. 냉전 시기였던 이 때, 미국은 소련의 세력 확대를 막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이슬람주의자들에게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성을 부추겨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와 같은 친미 아랍국가들과 달리 자원민족주의를 내세웠던 이라크에 대해 지금까지 군사, 경제적 압력을 계속하고 있는 미국에게 있어 중동지역 석유자원에 대한 통제가 주요하게 작용했듯이¹⁾, 천연가스 및 원유 등 자원의 이동로 역할을 하는 아프가니스탄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었던 것이다. 중앙아시아 진출을 노린 파키스탄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란과 적대적인 가운데 중동지역 이슬람제국 건설의 주도적 역할을 꾀하던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있어서도 아프가니스탄 반공주의 무자헤딘 세력을 길러내고 돈을 대줄 필요성은 분명했다. 이슬람근본주의자들과 그들의 반공주의에 대한 지원은 CIA와 사우디·파키스탄 정보기관에 의해 공동으로 수행되었으며, 특히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에 이슬람 '투사'들을 보내는 병기창이자 보급기지였다. 따라서 탈리반이라는 반여성적 테러집단은 냉전시대 강대국간의 첨예한 폭력 경쟁의 극렬한 형태의 반동작용이자, 세계 경제·정치적 이해관계의 맥락에서 출현한 결과적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최근 탈리반이 바이안 석불을 우상숭배의 이유로 파괴하자 유엔 등과 함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미국은 1996년까지

1) 이라크는 58년 바트당 집권시기에 서방 독점자본의 석유회사를 국유화시켜 자원민족주의의 물질적 기반으로 삼았다. 중동지역의 석유자원이 개별 아랍국가의 통제가 아닌 자국의 통제 아래 있기를 바랐던 미국은 1953년 민주적으로 선출되었던 이란의 모사데 정권을 붕괴시키고 팔레비 왕조를 지원하였으며, 호메이니가 주도하였던 이란혁명에 대해 이라크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면서 이란혁명을 붕괴시키려 하였다.

만 해도 탈리반과 사이가 좋았다. 그러나 198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고 걸프전과 1991년 소련의 몰락 이후 미국에게 있어 아프가니스탄의 이용가치가 많이 사라진데다, 1998년 250명이 사망한 케냐 및 탄자니아 주재 미 대사관 폭파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해 탈리반이 은신처를 제공하면서 관계가 결정적으로 틀어졌다. 미국의 주도로 국제사회와 유엔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해지기 시작한 이유이기도 했다. 지난 3년 간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100만 명 이상이 아사 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유엔 의석은 탈리반에게 축출된 부르하누딘 라바니 정권이 갖고 있으며 탈리반 정권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데다 무기금수, 여객기 취항금지, 해외자산 동결 등 다양한 제재를 받고 있다. 문제는 소위 강대국과 테러지원국가들에 대한 강대국 중심의 경제 제재 조치가 사실은 구린내 나는 은밀한 야욕에 기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결과가 무고한 대다수의 민중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기존의 전체주의적 권력을 강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여성의 노동을 금기시 하는 탈리반의 율법에 따라 직업조차 가질 수 없는 여성 가장들이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이조차 신성한 이슬람에 수치를 가했다는 이유로 테러를 당하는 현실은 극단적인 예도 아니다.

탈리반은 자신들의 목표를 '순수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심지어 힌두교도 등 이교도를 구분하기 위한 인식표로 노란 딱지를 달게 하는 등 흡사 "순수 게르만 민족주의"를 외쳤던 나치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이란, 이라크 등 이슬람 국가들마저도 탈리반이 강제하고 있는 교리와 법률은 이슬람 율법에 어긋난다고 비난할 정도다²⁾. 나치의 망령마저 깨운 탈리반이라는 괴물이 탄생한 것이다.

2) 그러나 이들 국가는 자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명예살인이 이슬람 율법과 배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다. 1991년부터 이라크 쿠르디스탄(쿠르드족 거주지역)에서 결혼을 거부하거나 남자와 스캔들이 있었다는 이유로 죽어간 쿠르드 여성이 5000명에 이른다.



탈리반에 의해 희생되거나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우울증, 심지어 자살충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탈리반이 집권하기 이전에 공공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했던 기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 여성들은 현재 조직을 결성하고, 목숨을 걸고 자신의 딸들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인터넷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 또한 이슬람교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녀'들의 울범은 '그들'의 울범과 다르다는 것을 그녀들은 이미 알고 있는 까닭이다.

2) 보수주의의 바로미터, 낙태의 권리

1990년대 초 여성운동은 UN 등 세계적 수준에서 영향력을 증대시켜 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전세계적으로 종교근본주의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여성계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근본주의자들 또한 국제적으로 여성주의적 의제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등 이슬람 근본주의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과장되

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카톨릭이나 그 밖의 종교 근본주의가 지니고 있는 반여성적 혹은 보수적 이데올로기가 흔히 이슬람 근본주의의 그것만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지 않고 있는 데에는 (여성운동 진영의 일정한 투쟁과 그로 인한 성과가 작용했음은 물론이겠지만) 분명히 문화적, 정치적 지배 세계로서의 서구 중심적 시각이 많이 작용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교리상 어느 종교가 가장 친여성주의적인가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종교가 여성과 관련된 정치와 일상에 대한 상호작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 맺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볼 때, 종교근본주의에 대한 '정치적' 시각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예컨대 미 대통령 선거에서도 언제나 핫이슈로 떠오르는 여성의 낙태권은 이제 여성의 권리 중 어느 하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종교계와 보수주의 집단 대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정치적 세력화 문제로 발전한지 오래다.

종교근본주의를 교리에 입각하여 여성의 권리와 인권에 반하는 정책이나 이념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관철시키려는 행위로 정의한다면 카톨릭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임신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인 낙태권이 주장된지 수백년이 지났지만 종교적 신념에 의하지 않는 여성, 즉 비종교인인 모든 여성들에게 낙태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카톨릭계의 정치적 로비와 압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

여성계와 이러한 종교집단간 대립 양상은 지난해 베이징+5 회의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베이징+5 회의는 부부간 강간, 강제 결혼 등을 비롯하여 여성에 '유해한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관행들을 근절'한다거나 또한 여성과 소녀들의 인신매매를 비롯한 성적 착취의 금지를 요청하고, '여성은 자신의 성적 특질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강압과 차별, 폭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책임감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문안을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결의안에 포함시켜 여성에 대한 문화적 상대주의로 치부되어 왔던 여성에 대한 다양한 억압에 대한 근절을 담고 있어 진일보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낙태와 성적 지향 등의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 여성의 재생산 권리에 대한 보호 및 이에 대한 보다 넓은 접근권의 보장, 그리고 남녀 동성애자에 대한 차

별없는 보호 등을 포함시키자는 제안에 대해 니카라과, 파키스탄, 리비아, 수단, 이라크, 이란 등 이슬람 국가들은 물론이거니와 바티칸을 필두로 한 카톨릭 세력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최종 선언문에서의 '성적 지향성'이란 용어의 사용도 거부했으며, 심지어는 여러 나라의 차별금지법 구절들을 인용한 실제 문안에 대해서도 거부를 나타냈다. 그들은 또한 산아 제한이나 여성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말들의 사용조차 거부했다.

바티칸의 유엔 내 정부 지위 무효화를 요구하는 '변화를 보라'라는 캠페인을 통해 선택의 자유를 옹호하는 카톨릭 모임이 유엔 건물 밖을 흐르는 강에 항의용 배를 띄우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카톨릭의 반여성적 보수주의는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3. '10년 전으로 되돌아가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남성이 수염을 자를 경우 감옥에 간다. 1991년 김귀정 열사의 유해가 모교에 들어서려 때, "밖에서 죽은 자는 집에서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저지했던 유럽이 한국에서 정권을 잡은 모습을 상상해왔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반여성적 보수주의가 정말 상상 속에서나 읽히는 것일까?

'10년 전으로 되돌아가자!' IMF 구제금융으로 위기론이 후끈 달아오르던 시기에 유행하던 구호다. 한국의 경제가 IMF로 10년쯤 뒷걸음 쳤다며 부활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했다. 마치 무성(無性)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구호를 포함한 모든 경제위기 극복 담론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가운데 여성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보수적 가치로의 회기에 근거하고 있다. 여성우선 정리해고는 물론, 최근의 모성보호법 유예까지 '여성의 권리'가 10년, 아니 그 이상 후퇴되었다. 신자유주의의 주창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엄격한 비용과 편익비용을 따져볼 때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느니 가정에 머물게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제안한 바대로, 그들은 여성의 노동력을 생계에 대한 책임이 덜하고 생산성이 낮은 것이라 단단히 매도하고 여성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한편, 매스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고개숙인' 남성 가부장의 모습만 부각시켰다. 또한 남성 가장의 명퇴로 인한 위기와 이를 슬기롭게 헤쳐가는 가족의 모습을 끊임없이 상징조작해내며 아버지의 권위를 중심으로 한 가족이테올로기를 강화하면서 가정에서부터 무엇이든 살뜰히 아끼자며 경제난은 여성 주부의 생활력으로 극복해야 하는 것인 양 무수히 강조했다.

"여보! 우리 함께 벌어요'(한경Business 1997년 제103호)라는 한 경제주간지의 특집은 주부들에게 재취업과 '벌이'에 대한 전략과 감각을 익힐 것을 고무시킨다. 이러한 구호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여성들에게 이중, 삼중의 불안과 좌절을 가져오고 가부장에 대한 무조건적 헌신과 순종을 당연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동하는 것이다." ('평등', 9호, 이숙진)

신자유주의는 국경조차 허물어야 한다는 경제적인 극단적 자유주의와 여기에서 비롯된 병폐들과 이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을 분쇄하기 위해 정치적 보수주의를 교묘히 활용한다³⁾. 실업, 사회복지프로그램 삭감, 그리고 이로 인한 삶의 질 저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여성은 재생산 노동과 소득 창출이라는 이중고의 전장에 다시 내몰지만 거기에서 그녀들은 당당한 노동자이거나 주체가 아니며 임시직 '근로자'이거나 남성의 보조자 역할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단지 제도권이나 지배계층 내에서만 아니라 남성중심 사업장 노조와 그를 중심으로 한 노조운동 및 진보진영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98년 메이데이 포스터와 현대 자동차 여성 조합원들의 투쟁을 상기해 보라!)

여성이 하나의 집단으로서 권리와 요구를 쟁취해온 기나긴 역사 가운데

3)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한 미국의 레이건, 부시 대통령이 1980년대에 노조의 파업을 강력하게 봉쇄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일으킨 것... 1980년대 미국 보수 세력이 소위 '문화전쟁'을 일으켜 소수인종이나 동성애자 같은 소수자의 비주류 문화, 예술의 실천에 대해 가족, 전통, 성적 순결 등의 보수적 도덕주의의 가치를 내세우며 비판과 탄압을 가하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한국 문화, 강내희)



문제의 민주노총 포스터

데, 모든 정치, 경제적 위기의 순간에 여성의 인권과 제반의 권리들이 제물로 받쳐지면서 그러한 성과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려는 많은 공격들이 존재해 왔으며 지금 또한 그렇다. 회교율법을 반여성적으로 강화하며 전체주의적 정권 유지의 이데올로기로 사용하고 있는 종교근본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주권주의적 경제관을 보수로 밀어 부치면서 경제적 자유주의를 숭상하는 한편, 문화적, 가부장적 보수주의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자들도 또한 가부장제 하에서 서로 내통하며 여성에 대한 착취와 폭력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이다.

*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세계화 반대 제3세계 여성팀

베일에 가려진 자유*

재키 라이든

지난 20년 동안 이란의 종교 지도자들은 철권 통치를 해왔다. 그러나 지금 혁명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고 이란은 결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한 젊은 여성이 최루탄 가스에 질식당하면서 테헤란 거리를 달리고 있고 그녀의 몸을 감싼 검은색 차도르가 펄럭이고 있다. 그녀의 머리 속에 떠오르는 단상들은 지난 20여 년간 쌓여온 모든 분노의 조각들(버스에서 여러 사람이 차도르 밑으로 몸을 더듬었던 날, 이슬람 정권 하의 삶의 관해 가슴 속 얘기를 털어놓은 영문 비밀노트 등)이다. 그녀가 보아왔던 폭력들, 최루탄, 그리고 온갖 난투들 모두가 그녀의 머리를 스쳐지나갔다.

이란에서는 한 주 동안 이란 정권의 개혁과 민주화 이행을 요구하며 정부에 대항하는 학생들의 공개적인 항의의 물결이 솟구쳐 오르고 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20년이 지나 혁명의 자녀들(국민의 65%가 25세 이하이다)은 혁명에 대한 집착과 근본주의적 사고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나메 제트(Nahmeh Z)는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소리

쳤다. “전체정치 끝장내자!” “이건 우리의 억눌린 감정의 분출이었어요.” 나메 제트는 “우리가 지금까지 숨겨야했던 모든 억압된 긍지와 감정들의 표출이었다고 생각해요. 지난 20년간의 정치적, 사회적 억압 말이에요”라고 말했다.

영어교사인 나메 제트는 이번 주 테헤란 중심가와 다른 18개의 도시에서 쏟아져 나와 표현의 자유를 맞본 수만 명의 젊은이들 중 한 명이다. 젊은이들의 분노가 매우 대중화되고 있고 공개적으로 폭발하고 있는 지금, 시민사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점차 더 비판을 받고 있는 신정(神政)의 절대적 권력과 더불어 이슬람 혁명이 존속할 수 있을지 세계는 의문스러워하고 있다.

내가 나메 제트를 처음 만난 것은 4년 전인 1995년, 그녀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교수의 자택에서였다. 나메는 조용하고 강직한 이슬람교도였고 기혼자였지만 거리에서 반드시 베일을 써야한다고 믿는 여성은 아니었다. 1995년만 해도 이란 정부는 그녀같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다. “나는 미국이 끔찍하고 사악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라고 그녀는 나에게 얘기했다. “왜냐면 그게 우리가 들었던 전부이기 때문이죠. 그 후 난 「뉴욕커(New Yorker)」를 읽게 됐어요. 그리고 제인 오스틴이나 블라디미르 나보코프같은 작가의 글들을 통해 당국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이러한 사실은 그녀가 영어교수로부터 배운 너무나 명확한 것이었다. 그녀의 영어 교수는 현재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다. 혼자 남겨진 나메는 자신의 느낌을 포착해서 귀중한 일기장에 기록했으며, 이란에서 사상의 자유로운 유통이 억압되는 것에 숨이 막혔다. 그녀만이 아니다. 2년 전인 1997년 선거에서 모하메 하타미를 권좌에 앉힌 것은 청년들과 여성들이었다. 이 온건파 후보는 거의 70%의 지지율을 얻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고 스스로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문 발행, 내각 내 진보적 인사 배치, 서방과의 대화 개시등 변화에 대한 대부분의 약속은 그보다 많은 권력을 휘두르는 (강경파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이끌고 있는) 최고지도위원회에 의해



총을 손질하고 있는 바시지즈

저지되었다. 1989년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사망하기 전에 임명한 최초이자 유일한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는 위협스럽게도 이란의 개혁 세력들과 어떠한 관계도 갖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혁명의 자녀들은

또한 혁명의 이탈자이기도 하다. 7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이란의 촌락에서부터 도시까지, 표현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요구가 열정적으로 분출되고 있고 정부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신정이 최고의 권력이며 법도 그 수중에 있다. 또한 사법부와 경찰, 혁명보위군과 다른 보안군을 지배하고 있으며 훨씬 은폐되어 있고 위협스러운 요소들(변화를 싫어하고 반체제 인사들을 마음대로 처형하는 바시지즈(Basijis)라고 알려진 소위 종교 처벌 자경단)을 묵인하고 있다. 그들은 다름아닌 정보부에서 이탈한 자들로, 지난 해 민주화운동의 지도자였던 파르바네와 다리우쉬 포루하르를 살해하기도 했다. 지난 11월 두 민주화 운동 지도자의 장례식에는 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정부는 대중적인 신문들을 계속해서 폐간했고 반체제적 문화인사들을 처벌했다. 그리고 10일 전에 있었던 첫 학생 시위를 촉발시킨 것은 바로 좌파성향의 신문 「살라암(Salaam)」을 정간시킨 사건이었다. 시위가 일어나자 자경단원들이 테헤란 대학을 습격하여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학생들을 공격했다. 몇몇 학생들은 2, 3층 창문에서 내던져졌다. 최소한 2명이 사망했고 수십 명이 수감됐다. 이로서 지배 엘리트의 일원이면서도 변화를 약속했던 하타미 대통령 앞에 모순의 상황이 놓였다.

1997년 나는 나메와 함께 테헤란에서 있었던 하타미 선거 운동에 여러번 참여했었다. 그에 대한 환호와 지지가 거리 곳곳에서 흘러넘쳤

다. 정부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후보이자 다크호스였으며 젊은이들은 밤에 돌아다니면서 그의 포스터를 벽에 붙였다. 그러나 현재, 이 회오리 바람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한다. 시위자들은 최소한 심정적으로나마 하타미가 바리케이트에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그는 하메네이와 손을 잡고 시위자들을 비난하는 편에 서있으며 최고지도위원회는 반체제자들을 기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건 참으로 역설적인 일이에요”라고 나메는 말했다. “우리는 하타미 대통령이 약속한 바를 알고 있지만, 그의 행동이 가로막혀 있거나 아니면 그는 말만 앞설뿐 행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대한 공격을 중지시키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정간된 신문을 재발행하고 정치범을 석방하고 사망한 학생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아무런 화답이 없어요. 결국 학생들은 ‘하타미 당신은 어디에 있나?’, 하타미 당신의 대응은 무엇인가?’라고 외칠 수 밖에 없죠.” 하타미 대통령은 요즘 희망의 지도자 역할을 못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 20년 동안 이슬람 공화국은 도덕적 신앙과 종교적 믿음은 물론, 사회불안을 통제하는 능력을 통해 권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혁명의 자녀들은 자신의 나라가 대마왕이라고 낙인찍은 바로 그 미국을 민주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인권에 대한 이념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슬람 혁명은 그 자녀들의 대부분을 교육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했고 그 결과 자녀들은 자신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테헤란, 이스파한, 쉬라즈와 같은 복잡한 도시에서는 물론, 농촌 지역에서도 인공위성의 혜택을 받아온 세대이다. 정부는 위성방송과 신문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보복을 했다. 지난해 「옵저버(Observer)」를 모델로 삼은 「자마에(Jama Eh)」(「사회」를 의미)라는 인기 있는 매체가 정부에 의해 폐간당했다.

정부는 또한 여성의 생명을 말그대로 남성 생명의 반 정도의 가치로 간주하는(여성이 살해될 경우의 보상금은 남성의 절반 정도이다) 엄격한 법을 변화시키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이러한 법률은 외부 세계

를 끌어안거나 외부 세계에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젊은 사회의 열망을 끊어버리는, 심지어 비이슬람적인 퇴행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타미 대통령은 이러한 열망을 위한 안전판을 약속했었다. 이제 그 압력이 폭발하고 있다. 그런데, 1979년 혁명과 다르게 아직까지는 조직된 지도부가 없다. 수십만 명의 개인들이 일어서긴 했지만 이슬람 정부체제를 뒤엎을 만한 강력한 힘으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기 오르는 듯하면서 뭔가 기대하는 정서가 널리 퍼져있다. 요정이 갇혀있던 병에서 나왔고 모든 사람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거리를 달리고 있을 때 머리 속에 다른 그림이 떠올랐어요.”라고 나메는 말했다. “눈에 최루탄 가루가 들어갔고 모든 것이 흐릿해졌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바로 이것이 정치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변화가 시작됐지만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1979년 수 천 명이 죽어나간 유혈 혁명과 같은 열기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수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선택은 명확하다. 젊은이들의 목을 조른다는 비난이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하타미 대통령이 촉발시킨 개혁세력을 봉쇄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란 정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다원적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강경파들의 입장에서는 다원화된 이슬람 공화국이란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분명한 현실이다. 테헤란 최고위원회가 청년 시위자들을 재판에 회부한다면 또



이란의 여대생들, “살인자 타도!”

다른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청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는가? 이란에서 15세면 법적 선거권을 갖는다. 하타미 대통령이 내년 봄까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면, 내년 의회 선거는 그가 약속했던 개혁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샤(이란의 국왕. 이란의 팔레비왕조는 1979년 혁명 당시 호메이니에 의해 타도당했다. 움긴이)도 민주화 세력의 도전을 받은 적이 있다. 시위자들은 이제 1906년에 제정된 이전의 민주적 헌법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파라왕비는 정권이 반체제자들을 너무 가혹하게 다뤘던 것은 문제이며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좀 더 현명했을 것이라고 나에게 말했다. 지나간 역사에서 얻은 교훈이지만 좋은 교훈이다. 오늘날 이란 지도자들의 전망은 거리에서 최루탄을 마시고 있는 시위자들의 그것처럼 혼탁해 보인다.

• 출처: 「인터내셔널뉴스」 65호 (1999/7/22)

「가디언」 (<http://www.guardian.co.uk>) 1999/7/17

억압과 아프가니스탄 혁명적 여성연합*

미나 난지**

파키스탄 페샤와르 - 나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여성과 함께 자동 인력거를 타고 분주하게 거리를 달리고 있다. 그녀는 안정적인 주소지가 없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있는지도 말해주지 않는다. 나와 동행한 여성은 아프가니스탄 여성권리그룹인 아프가니스탄 혁명적 여성연합(RAWA)의 회원이다. 자신을 '사하르'라고 밝힌 그녀는 나의 가이드이자 통역자이고, 우리는 아주 친한 친구가 됐다.

나는 파키스탄에 6주간 있으면서 다양한 길을 걸려온 많은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할 수 있었다. 매춘부, 거리에서 정치가, 언론인, 마르크스주의자에서 이슬람교 율법학자, 난민은 물론 대사관의 대사와 영사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RAWA의 여성들이다. 그들의 활동과 용기는 놀랄 만한 것이다. 그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면서 그나마 거의 없는 자원으로 그들이 이루어 낸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이다. 그들은 실제로 수백 명의 여성들과 그 가족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내가 보기에는 달리 바뀔 것 없는 척박한 상황에서 유일

한 한줄기 희망이다.

RAWA는 아프가니스탄 혁명적 여성연합을 의미한다. '혁명'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적인 단어이다. 사람들은 너무 '급진적', '극단적', '전투적'이라고 말할 지도 모른다. 사하르는 이러한 반응에 당황해한다. "우리가 스스로를 혁명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라고 그녀는 정직하게 말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성의 온전한 인권입니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인간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자체가 '혁명적'으로 여겨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든 이에게 언론, 사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비종교적인, 민주적인 정부를 원합니다. 이 바램이 너무나 혁명적인 것이지요."

"사람들은 우리가 '급진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모든 지하드(성전, 聖戰) 정당들이 이슬람교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하고 있는 근본주의자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RAWA는 1977년 대단한 카리스마를 지닌 여성인 메나 케쉬와르 카말에 의해 만들어져, 22년간의 전쟁과 투쟁의 풍파를 겪어왔다. 헌신적인 페미니스트이며, 시인이자 보건노동자인 메나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전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의 권리를 위해 운동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이러한 활동은 더욱 중요해졌다. 메나와 동지들은 아프가니스탄 독립투사들을 위한 학교, 숙소, 병원을 열었다. 조직을 세운지 10년 뒤, 메나는 암살당했다. 그녀가 KGB에 의해 살해당했는지, 이슬람당(Hizb-e-Isami)에 의해 살해당했는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죽어서도 메나는 강력한 영향을 미쳐 그녀가 시작했던 일들을 다른 여성들이 이어가도록 영감을 주었다.

탈리반 정권

RAWA의 투쟁은 민중, 특히 여성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지금의 야만적인 탈리반 정권 하에서 더욱 강렬해졌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의

삶을 제한하는 법에 대한 지난한 설명은 이제 상식이 됐다. 여성들은 일하거나 학교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외부에서 그들을 볼 수 없도록 어둡게 만든 창문이 달린 집에만 있어야 한다. 외출하려면 가까운 남자 친척과 함께해야 하며, 남자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실제적으로 여의사가 없기 때문에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여성들이 이러한 법들을 어겨서 잡히면, 심하게 맞고 투옥되거나 심지어 살해당하기도 한다. 여성에 대한 구타, 강간,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처벌받지 않는다. 탈리반 법 하에서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부도덕한 것 같다.

대부분 여성들이 심각한 우울증과 고립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탈리반 하에서 살기보다 자살하는 쪽을 택한다.

RAWA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약 2천 여명의 활동적인 회원을 가지고 있다. 대단히 제한적인 자원으로 그들은 여성 교육이라는 목표 하에 광범위한 사업을 벌여낸다. 그들은 소녀들을 위해 12학년제 학교를 운영한다. 그들은 또한 이동 병원을 운영하며, 간호사 양성코스,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을 위한 글자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여성들에게 닭을 제공해서 시장에 계란을 내다 팔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자가 소득 창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바느질, 자수, 카페트 짜기와 같은 일들이 권장된다. RAWA는 또한 대부분 전쟁 과부인 수천 명의 여성들이 노동이 금지되어 있고, 구걸로





자신과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매매춘으로 내몰린다는 것을 인식하고, 매매춘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지원해준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러한 모든 활동들은 회원들의 커다란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진행되는 것들이다. 모든 것이 비밀리 행해져야 한다.

만일 탈리반에게 발견되면 그들은 즉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사하르는 “그것만이 우리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고 말했다.

탈리반과 다른 지하드 정당들은 RAWA 회원들을 매춘부로 취급, 돌로 쳐죽일 수 있도록 하는 포고령을 내렸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가명을 사용하고 비밀리에 일해야 하며 한 장소에 오래 머물 수 없다. 그들은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유일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다.

RAWA는 또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상황에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파키스탄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집회들은 5천여 명을 끌어 모을 정도로 참여율이 높다. 그들의 남성 지지자들은 보디가드를 자처하여 RAWA의 목적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 RAWA는 또한 잡지를 펴내고 문화 행사들을 벌이며, 많은 회원들이 국제회의와 세미나에 점차 초청되고 있다.

최근 RAWA는 비디오 증거자료를 만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1999년 11월 카불의 한 여성은 간통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카불의 모든 여성들은 도심의 큰 스포츠 경기장에서 진행된 형집행을 지켜보도록 소집되었다. RAWA 회원은 비디오 카메라를 부르카(차도르와 비슷한 것으로 아프간 이슬람 여성들이 쓰는 베일-웁긴이) 밑에 숨겨 들어가 전 과정을 가까스로 담아냈다. 그때부터 사지 절단, 교수형, 목을 베어 죽이는 것과 같은 다른 처벌들도 녹화했다. 그러나 어

떠한 언론사도 이 필름을 사거나 방영하지 않을 것이다. RAWA는 자기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상에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지 않다.

그들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그들은 비정부기구 자격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인도주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최근 그들은 파키스탄 정부에 최근 폐쇄한 토르크함 근교 국경에서 움작달씩 못하는 수천 명의 여성들에게 담요를 나눠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비공식적’ 지위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RAWA는 개인후원과 잡지 판매 수익, 다른 자영업 프로젝트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다.

교육의 중요성

RAWA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사람들은 교육받을 필요가 있어요. 자신들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사하르는 말한다. “탈리반주의자와 지하드 세력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중 교육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지하면 조종하기 쉽기 때문이죠.”

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노고를 환영하고 있긴 하지만, RAWA가 교육에 대한 강한 신념을 대중들에게 확신시키는 데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가 여성들과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남편이 우리와 얘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남편들은 자신의 아내를 ‘반편’이라고 부르며, 교육의 필요성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사하르는 말했다.

그래도 그녀는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많은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전쟁과 싸움에 지쳤으며, 탈리반과 그들의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더욱 진저리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 “남성들조차도 탈리반을 지지하지 않아요. 남성들도 고통받고 있죠”라고 사하르는 말했다.

“남자들은 수업이 없거나 너무 짧으면 심하게 두드려 맞습니다. 만약 하루에 다섯 번 기도를 하기 위해 상점 문을 닫지 않으면 그들은 감옥에 가게 되지요. 이것은 이슬람교의 교의가 아닙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분명히 여성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일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슬람교는 분명히 '종교의 강요는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요. 일자리도 없고, 인프라도 없고, 교육 시설이 없기 때문에 소년들도 학교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이런 조건에서 살 수 있겠어요?” 나는 죽음, 고통과 어려움에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만난 모든 아프가니스탄 사람은 포탄, 지뢰, 전투, 고문, 강간 등 열거할 수 없이 많은 이유로 최소한 가족 중 한 사람(대개 그 이상)을 잃었다. 이러한 공포 속에서, RAWA의 활동은 주위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쟁에 지친 사람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희망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RAWA는 또한 세계 여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웹사이트(www.rawa.org)를 열면서 그들은 세계 수백 만 명의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엄청난 지원을 받는데, 지원 중 일부는 재정지원이다. 단돈 1달러도 그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소녀 한 명을 한 달간 학교에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작은 정성이 도움이 된다.

“우리는 세계가 우리의 메시지를 듣기를 바랍니다. 세계가 우리의 억눌린 목소리를 듣고, 우리의 목소리가 압제자들에 대항하여 크고 강하게 울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국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를 잃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루든지 간에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중이 원하는 것입니다.” 쉬운 해답도 빠른 해결도 없다. 난민들은 아마도 오랫동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하르의 말속에는 진실을 올려 마침내 희망을 구현할 무엇인가가 있었다.

* 출처: 「인터내셔널뉴스」 121호 (2001/2/5)
「주간녹색좌파」, 2001/1/27

** 미나 난지는 로스엔젤레스에서 활동하는 영화제작자로, 최근 RAWA에 대한 다큐멘터리고 있다.

“여성들의 투쟁은 고립되어선 안됩니다”*

수 볼랜드

혁명주의자이자 여성운동가인 타히레 마자르 알리는 “여성의 권리를 위한 투쟁은 노동계급과 농민의 투쟁으로부터 고립되어선 안됩니다”고 말한다.

알리는 파키스탄 민주여성연합(PDWA) 사무총장이자 파키스탄인권위원회 부의장, 전국노동당 당원이다. 그녀는 수십년 간 파키스탄의 공산주의 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반독재 운동에 참여해왔다. 「주간색좌파」의 수 볼랜드가 지난 달 시드니에서 그녀와 인터뷰를 하였다. 알리는 1947년 인도가 이슬람 국가(파키스탄)와 힌두 국가(인도)로 분할된 이후 파키스탄은 봉건 족벌들의 이해관계 아래 지배되어왔다고 설명했다.

독립투쟁 시기와 분리독립 직후에 이슬람연맹의 핵심지도자였던 모하메드 알리 지나는 여성의 평등을 주장했지만 이는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오히려 여성의 권리는 1947년 이전보다도 약화되었다.

“여성들은 영국이 떠난 후 커다란 변화를 겪었습니다. 영국 지배기에 우리는 많은 자유를 누렸기 때문이죠”라고 알리는 말한다. 어렸을 적에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은 “수영과 테니스, 하키를 즐기고 놀러 나

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가 힌두교도나 시크교도, 이슬람교도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모든 종교를 존중하라고 배웠어요.”

분리독립 이후에는 “모든 수영장이 폐쇄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자유롭게 어울리는 것이 금지됐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서도 안되게 되었지요.”

“분리 이후의 파키스탄 정부는 모두 군사정부였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가장 고난을 겪은 것은 1977년 쿠테타로 권좌에 오른 마지막 독재자, 지아 울-하크 치하였습니다.”

종교적 반동

종교 세력들은 여성은 공공장소에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주로 여성을 겨냥한 규율들을 만들어냈다. “이는 결국 거리와 대학에서 여성들이 구타당하는 결과를 낳았지요. 가령, 남녀공학의 수업시간에 웃는 여학생은 납치, 살해당할 것이라는 말을 들곤 했어요.”

종교집단들은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더욱 강력해졌다. 이들 집단이 반공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에 미국은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서 아프가니스탄의 탈리반을 지원하기 위한 ‘자유투사(무자히딘)’로 훈련시키도록 했다.

탈리반이 승리한 결과,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는 것을 금지 당한 수 많은 아프간 여성들이 거리에서 구걸하게 되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종교집단들은 몰라(이슬람 사제)들이 지아 울-하크의 묵인 아래 각급 학교를 접수함으로써 대중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몰라들은 자식을 학교에 보낼 수 없는 빈민층의 아들들에게 교육과 급식을 제공한다. 이 소년들은 결국 카슈미르나 아프가니스탄으로 보



파키스탄 민주여성연합의 타히레 마자르 알리

내저 무자히던 소속으로 전투에 참여하게 된다.

논쟁

지아 울-하크 시기에 여성 단체들 내에서 논쟁이 진행되었다. “부르주아 여성들 일부는 여성의 평등과 민주적 권리에만 초점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했지만 지아에 맞서 싸우면서 ‘여성을 위해 이것을 해달라’고만 말할 수는 없지요. 다른 모든 걸 요구하기 전에 사회의 민주화를 먼저 요구해야 했습니다.”

지아 시절, 불의에 맞선 모든 싸움의 시도는 억압되었다. 알리는 한 기독교인 간호사가 자신의 종교 때문에 박해받았던 상황을 설명해주었다. 알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항의를 조직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였다. 20명의 간호사 중 단 세 명만이 참석했는데 다른 간호사들은 너무나 겁먹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간호사들이 회의장소에 도착했을 때 세 대의 군용트럭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결국 모두 체포당했다.

알리는 지아에 맞서 싸우기 위해 여성행동포럼을 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부르주아와 프티부르주아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들이 지아에 맞서 여성행동포럼에 결합했습니다. 억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반여성적인 모든 법률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이와 유사한 논쟁은 1971년 중앙정부가 동파키스탄(현재의 방글라데시)과 전쟁을 벌이는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났었다. 줄피카르 알리 부토와 그가 이끄는 파키스탄인민당의 지지를 등에 업은 독재자 야히야 칸은 파키스탄 군대가 백만 명 이상을 학살하게 만든 책임자였다.

알리는 거리로 나가 동파키스탄에 대한 군사행동을 비판하는 소책자를 배포한 여섯 명의 여성 중 한 명이었다. 이들은 체포 위협을 받았지만 자신들의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알리는 이 여섯 명의 여성이 교육받은 상류계급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교육받은 문맹여성들이었다고 말했다. “벵갈(동파키스탄) 여성들이 강

간당하고 있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곤 하는, 박사학위를 가진 여성친구들이 당시 그녀에게 많았다고 한다. 알리는 이들 여성이 “진정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인지” 의문을 품었다. “나는 그런 류의 교육은 원치 않았습니다.”

“잘못된 일을 보면 이에 맞서 정치적 영역에서 싸워야만 합니다. 민중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파키스탄 군대가 벵갈에서 저지른 일, 여성들을 길가에서 살해하고, 수천 명의 여성을 강간한 사실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방글라데시에 가보면 수천 명의 고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그들의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여성의 투쟁은 여성의 권리를 위한 정치적 투쟁입니다. 그러나 이는 노동계급과 농민의 투쟁으로부터 고립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여성의 권리를 위한 싸움은 노동자, 농민의 자유를 위한 투쟁과 함께 하는 공동의 투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알리에 의하면, 파키스탄의 좌파 노동조합들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투쟁을 지지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지도자가 체포되면서 궤멸되었다. 오늘날 세력을 유지하는 노동조합들은 대부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법정에 출두하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원을 조직해달라고 알리가 노동조합들에 요청하면 그들은 대부분 그만한 힘이 없다고 대답하곤 한다. 여성들이 이혼하고자 법원에 설 경우 살해위험을 받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이다.

NGO에 관해

알리는 NGO의 역할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녀는 NGO들이 여성의 권리를 위한 정치적 투쟁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한다. “우리 진보적인 사람들 중 일부는 NGO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시위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와 같은 혁명적 헌신성을 갖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모든 문제가 이들 NGO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NGO들 안에도 매우 훌륭한 여성들이 있지만 거리로 나와 항의시위를 벌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활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해외에서 후원을 받는 NGO들은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후원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곤 합니다.” 파키스탄 민주여성연합은 NGO가 아니다. 이 단체는 분리독립 직후 결성되어 파키스탄 최초의 독립적 여성조직이다. “우리 조직은 처음부터 정치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베트남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여성들이었고, 노동조합운동과 긴밀한 연계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 성원의 4분의 3은 공산당원이었지요.”

민주여성연합은 여전히 NGO 바깥에 있는 유일한 독립적 여성 조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NGO에 일자리를 얻어 들어가면서 이제는 큰 조직은 아닙니다. 우리는 노동계급 밀집지역과 빈민 지역에서 주로 조직화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서 정치적 의식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리를 안다는 것

여성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는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는 것이다. 법률에 따르면 여성은 두 번 결혼할 권리가 있지만, 이슬람교도들 대다수는 여성이 가정을 떠나선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알리는 근본주의자들이 이슬람 율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슬람교에서 여성은 분명 권리를 가지고 있긴 하다. “그러나 정부와 이슬람교가 이러한 권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이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알리는 폭행당하고 가정에서 내쫓긴 여성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조직인 다스탁의 회장이다. 다스탁은 이들에게 살 곳을 마련해주고 법률구조를 제공한다.

다스탁은 ‘명예’살인(여성이 결혼이나 이혼을 위해 집에서 도망쳤다는 이유로 죽이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법원과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옹호한다.

알리는 서북부 국경지역에서 이혼하기 위해 라호레로 온 한 여성의 사례를 말해줬다. 그녀는 3년 동안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한 남자를 고용해서 그녀를 썩서 죽이도록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사법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그 여성의 아버지가 상공회의소 의장이기 때문이었다.

알리는 좌파 정당들이 아직도 여성들의 투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당들의 회의에 알리가 자주 초청을 받는데, 자신 이외에는 여성 참석자가 극히 드물다고 한다.

“하루는 내가 그 동지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성은 들뿐이군요. 당신들 부인은 다 어디 있지요? 그녀들을 데리고 와서 정치적 교육을 받게 하세요. 그녀들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와서 들으라고 하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지하로 숨어야 할 때, 적어도 여러분의 부인들은 동조자가 되겠지요.’”

“여러분이 부인들에게 당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말하지 않은 채 항상 부인들에게 명령만 한다면, 지하 활동을 해야 할 경우 여러분 부인들은 공감하지 못할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 당신들은 아내가 회의석상에 나올 경우 당신들이 아내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출처: 「인터내셔널뉴스」 76호 (1999/10/28)

「주간독색좌파」 (<http://www.greenleft.org.au>) 1999/10/27

단종재배, 독점, 신화와 농업의 남성화*

반다나 슈바**

저는 캐나다 정부가 주최하고, 몬산토가 후원한 '농업과 여성 국제회의'의 '여성의 지식, 생명공학과 국제 무역 - 새천년으로의 새로운 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문의 발제자로 초청 받았습니니다. 제가 보기에, 이 회의는 여성들을 몬산토의 전체주의적 제국에 수동적 파트너로 포섭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3세계 여성농민들이 유전자 조작 작물과 씨앗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하는 사업의 파트너라는 전제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일들이 많고 인도 내에서의 잦은 출장 때문에 워싱턴까지 가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이 논문을 농업과 여성 회의에 발송하는 바입니다.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생명 위협적 프로젝트에 페미니즘을 증속시키고자 하는 생명공학 산업과 농산물기업, 더불어 미국과 캐나다의 정부의 의도를 폭로하기 위해 다른 분들에게 이 논문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6월 27일
반다나 슈바 올림

장마가 도래하였고 우리의 나브다니아(아홉개의 종자, 생물의 다양성 보존을 위한 전국적 운동)팀이 다른 기타 농작물의 풍부한 다양성과 함께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300가지 이상의 벼 품종을 바쁘게 이식하고 있는 히말라야산맥의 아름다운 둔(Doon) 골짜기에서 나는 이 논문을 쓰고 있다. 우리 농장은 어떠한 화학물이나 외부 투입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농장은 생물종 다양성을 보존하면서도 인간과 가축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자체 재생 시스템이다. 우리의 두 마리 황소는 흙과 물을 오염시키는 화학 비료에 대한 대안이자, 또한 공기를 오염시키고 기후 안정을 위협하는 트랙터와 화석연료에 대한 대안이다.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벼 품종 중 하나는 향이 짙은 벼로 유명한 데드라 던의 바즈마티이다.

농민들이 지난 수백년 동안 우리 골짜기에서 재배해온 바즈마티 벼는 오늘날 라이스텍(5,663,454호)¹⁾이라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새로운 벼 제품군의 인스턴트 발명품'이라 규정되었다. 우리의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이 살충제와 살균제로 지난 수백년 동안 사용했던 '네엠'을 또 다른 미국 기업인 W.R. 그레이스가 같은 용도로 특허권을 얻어냈다.³⁾ 우리는 유럽의회의 녹색당원들과 함께 유럽특허청에서 그레이스의 특허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왔다.

제3세계 여성들이 수백년 간 수집하고 사용했던 집단적 지식과 혁신을 서구의 기업들이 도둑질하는 생물종 해적질(biopiracy) 현상은 이제 전염병과 같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생물종 해적질'은 이제 농산물 기업과 제3세계 여성들 간의 새로운 '동반관계'라며 정당화되고

- 1) "Cultivating Diversity: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the Politics of the Seed", 과학·테크놀로지·천연자원 정책 연구 재단(RFSTNRP), 뉴델리, 1993 및 "Sustaining Diversity: Renewing Diversity and Balance Through Conservation", RFSTNRP, 뉴델리, 1994, "The Seed Keepers", RFSTNRP, 뉴델리, 1995
- 2) 반다나 슈바, "Biodiversity and IPRs: Lessons from Basmati Biopiracy" 및 "The Basmati Patent: What it Implies? How Should India Respond?" - 1998년 5월 브라티스라바에서 개최된 '생물종 다양성에 관한 회의'를 위해 준비된 보고 자료
- 3) 반다나 슈바, K.Vijayalakshmi, K.S. Radha, "Neem: A User's Manual" RFSTNRP, 뉴델리와 CIKS, 마드라스, 1995

있다. 우리에게 있어 도둑질은 동반관계의 기반이 될 수 없다. 동반관계는 평등과 상호존중을 의미한다. 이는 생물종 해적질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해적 행위를 범한 자들은 자신들이 도둑질 해간, 지적재산권 독점을 통해 지적 및 자연적 창조성을 훼손당한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함으로 의미한다. 제3세계 여성들과의 동반관계는 미국과 인도 간의 TRIPs(지적재산권협정) 분쟁⁴⁾의 경우처럼 해적들을 비호하고 기존의 품종개량자들을 처벌하는 WTO/TRIPs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또한 이러한 동반관계는 우리의 생물종 다양성과 관련된 지식에 대해 이미 만연해있는 도둑질을 허용하는 미국의 특허법의 개정을 요구한다. 이런 변화들은 우리의 집단적 지식과 혁신이 보호되고, 여성들이 인정을 받고 지식의 담지자이자 생물종 다양성 전문가로 존중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⁵⁾ 공 부농수 남자 [이공부농수] 여성농민들은 지난 수천년 간 종자의 보관자이자 관리자였다. 바즈마티는 인도 농민들이 발달시킨 10만여 가지 벼품종 중 하나이다. 다양성과 다년재배는 우리 종자의 문화이다. 벼품종 다양성의 바빌로프 중심지(Vavilov Centre, 세계 식물종의 근원지는 12개 곳이라고 주장한 바빌로프의 이름을 딴, 생물종의 근원지를 의미하는 말-옮긴이)인 인도 중부 지역에서는 농사가 시작될 때 농민들이 마을 신 앞에 모여 자신들의 벼종자를 바치고, 종자를 나눠갖는다. '아크티(Akti)'라는 이 연례 행사를 통해 농민 공동체 사이에서 종자를 보관하고 서로 나누는 책임을 해마다 반복한다. 이 행사는 농민들 사이에, 그리고 농민과 땅 사이에 동반관계를 형성시킨다.

그런데 종자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종자 보관과 종자 교환을 불법화함으로써 땅과 서로에 대한 이러한 책임을 범죄화한다. 농민들의 종자

4) 반다나 쉬바, "WTO, Rules Against Democracy and Justice in the U.S. -India TRIPs Dispute" -1998년 5월 브라티스라바에서 개최된 '생물종 다양성에 관한 회의'를 위해 준비된 보고 자료

5) 반다나 쉬바, 아프사르 H. 자프리, 지탄잘리 베디, 라다 홀라-바르, "The Enclosure and Recovery of the Commons", 과학·테크놀로지·생태 연구 재단 (RFSTE), 뉴델리, 1997

보관을 막아내려는 시도는 새로운 지적재산권 법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전공학 기술로도 이루어진다. 델타와 파인랜드(지금은 몬산토 소유)와 미국의 농산부는 유전자 조작을 거친 종자에 대해 공동 특허권(5,723,785호)을 통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는데, 이 종자는 추수시기에도 발아하지 않게 조작하여 농민들이 매 경작기마다 종자를 살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발아를 막는 것은 자본 축적과 시장 확대를 위한 수단이다. 반면, 자연과 농민들이 갖고 있는 풍부함은 몬산토의 시장이 확장될수록 축소된다. 우리는 씨앗을 뿌릴 때 "이 씨앗의 끝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기원한다. 이와 반대로, 몬산토와 미국 농산부는 "이 씨앗이 그 것으로 끝나 우리의 이윤과 독점이 끝없이 이어지길" 염원한다.

자연의 재생능력을 파괴하는 종결의 논리와 제3세계 여성농민들이 간직해온 생명의 존속성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 동반관계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두 가지의 세계관은 상충될 뿐만 아니라 상호배타적이다. 몬산토 제국 확장의 기반이 되고 있는 죽음의 논리와, 가족과 공동체의 식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땅과의 상호관계에 기반한 제3세계 여성 농민들의 삶의 논리 사이에는 동반관계가 있을 수 없다. 제3세계 여성 농민들과 몬산토와 같은 생명공학 기업들 간의 상호배타적 이해관계와 관점에는 또 다른 여러 측면들이 있다.

농업에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된 유전공학 분야는 제초제 저항성, 즉 제초제에 저항할 수 있도록 작물들을 품종개량을 하는 것이다. 몬산토의 라운드업레디(Roundup Ready; 몬산토가 제초제를 견뎌내도록 개발한 일련의 유전자조작 제품군-옮긴이) 콩과 면화는 이러한 적용



의 예이다. 이 제품들이 제3세계 농업체계에 도입되면, 농화학물의 사용을 증가시켜 환경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기존 여성들의 생계기반인 생물종 다양성을 파괴할 것이다. 몬산토에게 잡초인 것이 제3세계 여성들에게는 식량이고, 사료이자 약품이다.

인도 농업에서 여성들은 약 150가지 종의 식물들을 식용채소, 사료와 약재로 사용한다. 서벵갈 지역에서는 논에서 수확한 124가지 종의 '잡초'들이 농민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⁶⁾ 멕시코 베라크루즈의 엑스파나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435가지의 야생 식물과 동물을 사용하고 이 중 229가지는 식용이다.⁷⁾

라운드업레디 작물의 확산은 이러한 다양성과 그것이 농민에게 주는 가치를 파괴할 것이다. 또한 간작과 혼작으로 인한 토양 보전 능력을 손상시켜 토양 침식을 가속화할 것이다. 몬산토가 조장하고 있는 신화와는 반대로, 라운드업레디 작물들은 토양 보존의 방법이 아닌 토양 침식을 위한 처방이다.⁸⁾

제3세계의 생물종 다양성과 소농을 파괴하고 있는 가부장적 종자 지적재산권 사업과 농업 관련 유전공학에 제3세계 여성들과의 '동반관계'라 거짓 명칭을 붙이느니 농업 정책을 생물종 다양성에 기반한 소규모 농업을 촉진시키는 여성중심적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몬산토와 생명공학 산업이 공동으로 애용하고 있는 신화는, 유전공학 없이는 세상이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명공학이 식량 생산을 4배로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반면, 소규모 생태적 농장들은 종래의 대규모 상업적 농장보다 100배나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다.⁹⁾

6) 호프 산드, "Harvesting Diversity", RAFI, 1997

7) UNDP, "Agroecology: Creating the Synergism for a Sustainable Agriculture", 1995

8) 1997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미국과학아카데미 주최 '자연과 인간 사회에 대한 포럼'에서의 몬산토 회장 헨리크 베르파일리의 발언 중

9) 반다나 슈바, "Betting on Biodiversity: Why Genetic Engineering Will Not Feed

제3세계 여성농민들은 대다수가 소농이다.¹⁰⁾ 이들은 식량 안정의 기반을 다른 종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제공한다. 여성과 생물종 다양성 사이의 동반관계가 과거에도 세상을 먹여 살렸듯이, 현재도 그러하고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 유지하고 촉진시켜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동반관계이다.

다양성, 탈중심성, 생태적 방법을 통해 소농의 생산력 증대에 기반하고 있는 농업은 여성중심적이며, 자연친화적 농업이다. 이러한 여성중심적 농업에서는 지식이 공유되고, 다른 종과 식물은 '소유물'이 아니라 동족이며, 비옥한 토지, 생물종 다양성 및 풍요로부터 오는 재생능력에 기반한 지속가능성으로 인해 농장에서는 외부 투입물이 필요 없어진다. 우리의 페러다임에서는 유전자조작된 작물의 단종재배와 종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독점을 위한 공간은 없다.

단종재배와 독점은 농업의 남성화를 상징한다. 군사적-상업적 농업의 기저에 흐르는 전쟁 정신은 제3세계 농촌지역에서 극빈층 여성들의 생존적 경제 기반을 파괴하고 있는 제초제의 이름만 봐도 분명해진다. 몬산토의 제초제 명칭은 '라운드업(Round up; 둘러모으다)', '마체테(Machete; 중남미에서 쓰는 벌채용 칼이자 무기)', '라소(Lasso; 을가미 밧줄)'이며 몬산토와 함께 등장한 아메리칸홈프로덕츠(American Home Products)의 제초제는 '펜타곤(Pentagon; 미국 국방부)', '프라우(Prowl; 배회·순찰하다)', '스캡터(Scepter; 왕권)', '스쿼드런(Squadron; 중대, 대대)', '캐드리(Cadre; 군간부)', '라이트닝(Lightening; 번개)', '어서트(Assert; 주장·단언하다)', '어벤지(Avenge; 원수를 갚다)'라 불린다. 이들은 지속성의 언어가 아닌 전쟁의 언어이다. 지속성은 땅과의 평화에 기반을 둔다.

지구적 농기업과 생명공학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과 메타포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은 자연의 생물종 다양성, 여성의 전문성 및 생산

the Hungry", RFSTE, 뉴델리, 1998

10) 반다나 슈바, "Betting on Biodiversity: Why Genetic Engineering Will Not Feed the Hungry", RFSTE, 뉴델리, 1998 및 반다나 슈바, "Globalisation of Agriculture, Food Security and Sustainability", RFSTE, 뉴델리, 1998

성에 대한 폭력이다. 단일재배를 통한 다양성의 파괴 및 지적재산권 독점, 그리고 이에 기반한 종자 보존 및 교환의 자유를 파괴하는 데 내재되어 있는 폭력은, 자연을 이해하고 식량 안정을 제공하는 다양하고도 비폭력적인 여성의 방식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체계와 생산체계의 다양성이야말로 제3세계 여성들로 하여금 지식의 담지자이자 생산자로 그리고 식량 제공자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지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길이다.¹¹⁾

유전자조작과 지적재산권은 제3세계 여성으로부터 농업에 있어서 그녀들의 창조성, 혁신성 그리고 의사결정권을 앗아갈 것이다. 세계화에 기반한 농업, 종자에 대한 유전공학과 기업독점으로 인해, 여성들이 밭에서 무엇이 자라고 부엌에서 무엇이 요리되는지를 결정하는 대신, 우리의 밭에서 무엇이 자라고 우리가 무엇을 먹는 지에 대해 전지구적 기업들을 통제하는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 체계와 세계관이 자리잡을 것이다. 도둑질과 생물종 해적질에 금융자본을 투자하는 기업 남성들은 자신들을 생명의 창조자이자 소유자로 표상하게 될 것이다. 수백만 가지의 종과 수백만 소농의 몰락을 앞당기면서도 자신들을 '생명 과학 산업'이라 부르는 전지구적 생명공학 기업들에 의한, 창조의 창의성과 제3세계의 여성들에 대한 이 폭력적 강탈 행위와의 동반 관계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 출처: 원월드 (<http://www.oneworld.org>)

** 인도의 물리학자, 과학·테크놀로지·천연자원 정책 연구 재단(RFSTNRP)의 소장으로서, 에코페미니즘의 주창자이다.

11) 반다나 쉬바, "Most Farmers in India are Women", FAO, 1991

2000명의 여성, 유전자 조작 식품에 반대하며 브라질 슈퍼마켓을 봉쇄하다

식품유통에 대한 기업 통제에 대항하는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000여 명의 여성들이 유전자조작식품에 반대하여 브라질리아 남쪽으로 800마일이 떨어진 슈퍼마켓을 봉쇄해버렸다.

2001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브라질 전역의 여성농민들은 그녀들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전지구적 경제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시위를 벌였다.

브라질리아의 남쪽으로 약 1,600km 떨어져 있는 포르토 알레그레에서는 브라질의 무토지농민운동(MST) 소속 여성농민 700여 명이 맥도날드 식당을 점거하였다.

이들은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로고가 있는 깃발들을 태우면서 경제적 세계화를 비판하였으며 브라질 정부를 전세계적 신자유주의의 노예라고 했다. 이날의 집회는 대규모 노동자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지난 1월 브라질에서 체포된 조제 보베의 세계화 반대 활동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인데, 그는 프랑스에서 맥도날드 식당을 파괴하여 유명인사가 된 목양업자이다.

같은 날 브라질리아 남쪽으로 약 1,300km(800마일) 떨어진 플로리아노 폴리스에서 2000여 명의 여성들이 유전자조작 식품을 판매한 슈퍼마켓의 통로를 봉쇄하였다.

그리고 브라질리아 남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벨로 호리존테에서는 시의회 앞에서 한 무리의 여성들이 정부가 농업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출처: 「다시 일어서는 제3세계」, (<http://www.twinside.org.sg>)

새로운 세계 무역 체제가 필리핀 여성농민에게 미치는 영향*

테레시타 올리베로스**

세계화와 WTO가 강제한 새로운 무역 체제는 필리핀 여성농민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여성들은 이에 대항하고 있다.

농업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

필리핀은 봉건적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초기산업 경제이다. 봉건적 경제 구조는 농촌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총 1,120만 명의 농업 노동인구 중 850만 명이 무토지 농민이다. 이 결과는 기본적으로 남성만을 농민이자 노동력으로 간주하는 정부 자료에 기반하고 있다. 그런데 무토지 여성농민과 여성 농장 노동자의 수는 남성들과 비슷하다. 이는 15세 이상의 농촌 여성 인구가 총 800만 명에 이른다는 수치에 기반한다.

지주에게 유리한 70대 30 또는 60대 40 비율의 소작체제가 (필리핀에서는) 지배적이다. 그래서 수백만 명의 소작농들은 착취적 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예를 들어 코코넛살(코프라) 생산 작업은 맨손으로 이루어지며 장시간 노동을 요구한다. 작물 수확은 3개월마다 이루어지고 가족의 모든 성원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한다. 250그루의

코코넛 나무가 심어져 있는 1헥타르(1만 평방미터) 규모의 토지에서 임대 가족은 수확시마다 130페소 또는 5달러를 받는 반면, 지주는 한 수확기 당 450페소 또는 17달러의 이윤을 챙긴다. 농민 가족 전원이 일을 하지만 이들은 수확물 중 매우 작은 부분만 얻는다.

사탕수수 농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억압적인 쿼터제가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서 지주는 사탕수수 생산의 특정한 단계(즉, 파종기)에 대해서만 남성 노동자와 계약을 맺지만, 임대를 준 토지에서 모든 일을 가족 전원이 나서서 완성하도록 압박한다. 분명한 것은 여성과 아동의 노동은 고려되지도 않고 임금이 지불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요 경작지에는 지주, 관료와 자본가에게 유리한 수출 또는 상업용 작물이 심어지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진 불모지의 땅이나마 개간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여성들은 부족한 가족임금을 채우기 위해 비농업 활동에도 종사한다. 토지가 남편이나 시집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생산성 증대를 위한 신용대출과 훈련체계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 노동의 성별 분업에 여성들은 또한 가사노동의 부담마저 안고 있다.

강제된 경제 정책의 영향

세계 무역 체제가 적용시킨 이러한 농촌 구조는 농민과 그들 가족에 대한 착취를 강화시켰다. 예를 들어, 1960-70년대에는 국제 시장의 엄청난 수요에 따라 환금작물이 광범위하게 재배됐다. 지주들이 굶어모은 막대한 이윤에도 불구하고 여성농민, 남성과 아이들에 대한 착취는 더욱 강화되었다. 1980년대 초, 세계 시장에서 이러한 작물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떨어지자 농민과 농촌가정에 엄청난 손실과 빈곤이 들이닥쳤다. 네그로스섬(필리핀의 주요 사탕수수 생산지 중 하나)에서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기아와 영양실조,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 사망했다.

새로운 세계 무역 체제로 인해 북반구 사람들의 입맛, 선호도 및 생

활양식의 변화, 그리고 천연자원에 대한 다국적기업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농산물의 수요가 급증했다. 2000년 산업화를 목적으로 라모스 정부가 저돌적으로 밀어 부친 중기개발계획(MTPDP)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업의 방향을 급속히 선회시켰다. 중기농업개발계획(MTADP)은 현재 쌀과 옥수수(기본 식량) 재배 농지의 65%에 해당되는 310만 헥타르의 토지를 용도변경하여 아스파라거스, 바나나, 유칼립투스, 그리고 안수리움이나 난 등의 화훼용 꽃과 같은 '고부가가치 수출용 작물'로 대체하여 심는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땅은 가축을 위한 목초지로 전환될 예정이다. 쌀과 옥수수의 심각한 부족난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은 강행되고 있다.

많은 거대 코코넛 및 사탕수수 농장에서는 정부의 선동 하에 지주들이 농민과 임대인들을 내쫓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모색하고 있다. 네그로스오리엔탈의 기흥간에서는 300여 농가가 경작하는 1,000헥타르의 농경지가 외국인 가축을 위한 목초지로 변경될 것이다.

국제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이러한 작물 전환은 여성농민과 그녀의 가족에게 더 큰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농민의 무토지화 현상 증가와 안정적 식량 공급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다른 대가도 치뤄야 한다.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고부가가치 작물에 화학물질이 집중적으로 사용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농민과 아이들이 이러한 파괴적 화학물질에 가장 쉽게 노출된다고 한다. 민다나오의 도레필-스탠필코 소유의 바나나와 파인애플 농장에서는 여성 농장 노동자들이 농장 운영 대부분의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살충제와 다른 농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여성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 '다루기 쉽기' 때문에 지상 살포 담당, 수확 담당, 통조림 담당 또는 포장 담당으로 고용된다. 게다가 여성들은 어머니로서 가족 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그녀의 남편과 아이들이 완성하지 못한 일에 대체 노동력으로 투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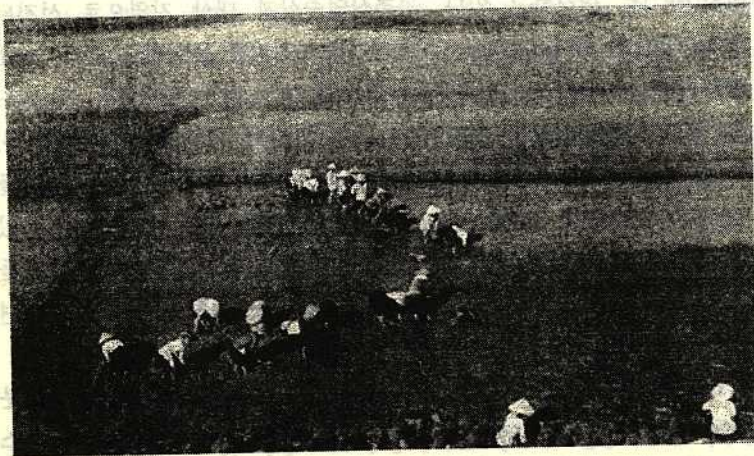
중기개발계획은 또한 농촌 공동체와 농경지를 산업, 주택건설 또는 관광 사업을 수행하려는 해외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농촌산업증

심지(RIC)로 변경하고 있다. 농촌산업증심지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23개 지역 중 16개 지역은 약 12만 여 농경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투자자들에게 50-75년까지 토지를 직접 임대해줄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 임대차계약법인, 공화국 법안 7652호가 통과되었다. 정부는 대통령실, 농업개혁부, 환경·천연자원부를 등에 업고 농민들을 쫓아내기 위해 그들을 기만하고 범죄화하는 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와 지주 모두 농민으로부터 땅을 빼앗아 해외 다국적 기업들에게 임대해주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중기개발계획이 실행된 지 2년 만에 11만 8천 헥타르의 농경지가 다른 목적으로 변경되었다.

종합농업개혁사업(CARP) 하의 토지소유증서(CLOA) 제도를 통해 분배된 토지도 몰수를 면하지 못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바탕가스에 있는 필스테이즈의 하버타운이다. 이는 4개의 골프장과 고급호텔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사용될 많은 땅은 농업 개혁 수혜자들이 경작하던 것이다. 농민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증서가 무효화되었고, 그들의 땅은 불모지이자 용도변경 대상 토지로 선정되어 정부가 필스테이즈에게 팔아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홀의 팡라오에서는 관광 사업을 위해 대대적인 토지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다. 불행하게도 여성 200명이 포함된 이 땅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납세증서 밖에 없었다. 아주 극소수만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집과 생계기반으로부터 쫓겨날 위협에 처해 있다. 이주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어민들도 이와 비슷한 조건으로 그들의 정규 어획지에 대한 접근을 금지당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 많은 젊은 농촌 여성들로 하여금 생존을 위한 다른 방도를 찾게 만들고 있다. 팡라오에 있는 해변 리조트에 젊은 농촌 여성들이 매매춘업에 고용된다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거대 규모 카라바르존(Calabarzon; 남부 루존의 카비테, 라구나, 바탕가스, 리잘, 궤존 등 다섯 개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 사업으로 쫓겨난 여성농민과 그녀의 가족의 삶에 대한 처음으로 시행된 현황조사는 여성



농민들과 아이들이 매우 낮은 임금과 착취적 노동 조건 속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여성들이 관광 지역에 발달한 골프장 캐디로, 도심의 파출부로, 또는 식당이나 가라오케, 맥주집 등의 오락 시설의 서비스 노동자로 이중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은 여성들을 성폭력과 성희롱의 위협에 더욱 노출시킨다.

레온, 투봉간과 잉고레에서의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농경지, 작물, 가옥 등이 파괴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농민들, 심지어 초등학교 여자아이들을 세탁부, 파출부나 판매원의 일을 찾아 도시로 가게 만든다. 하지만 같은 부류의 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거리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더군다나 중산층은 소득이 감소하여 보조원 고용을 축소해나가는 추세이다.

농업 부문에 있어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약속은 여성농민들에게 또 하나의 암울한 미래상을 제시한다. 정부의 관세 인하 정책으로 모든 농산물이 자유롭게 수입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법의 보호를 받아온 양파, 마늘, 감자 등 농민들의 전통적 생산물에도 영향을 끼쳤다. 수입된 마늘 등이 이제 동네 시장에 홍수처럼 들어온다. 필리핀 정부는 WTO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른 법적 규제들도 철폐할 계획이다.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우려가 되는 것은 정부가 쌀 수입 개방을 추진 중이며, 이것이 대통령의 재량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1995년 1월, 필리핀이 WTO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난 후, 필리핀에는 심각한 쌀 위기가 들이닥쳤다. 순식간에 쌀값이 두 배로 뛰었고 어느 농촌 지역에서는 3배나 뛰었다. 이 위기로 수백만 명의 필리핀인들이 하루 한 끼로 연명해야 하는 배고픔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예 쌀을 먹지도 못했다. 정부는 이 위기의 원인을 낮은 생산성에 따른 쌀 부족으로 돌렸다. 하지만 전투적인 농민 단체들의 노력으로 쌀 위기가 WTO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수입을 정당화하려고 조장된 것임이 밝혀졌다.

(WTO에 대한 정부의) 충성은 지역 농민들의 생산물 가격을 폭락시켰다. 장기적으로 농민들은 파산의 위협 때문에 이전부터 유지하던 농산물 생산을 아예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기구(IMF)의 처방에 따른 농촌 보조금 철폐는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시켰고 농민들의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축소시켰다. 5만 명의 벵게트 감자 경작 농민들의 경험이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에서 건너온, 튀김용 가공 감자의 유입으로 1990년에 비해 감자 가격이 거의 절반 가량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의 진전은 여성농민들에게 부족한 가족임금을 보충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좁힌다. 농촌 여성들은 농작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채소 재배나 가축 사육(뜰에서 할 수 있는 노동)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분의' 수입과 식량 공급원도 감자, 마늘과 더불어 돼지, 염소, 닭 등 가축의 자유로운 유입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촌 지역에서 생물종 탐사(bioprospecting, 새로운 약품 등을 개발하기 위해 생물종을 채집하여 연구하는 생명공학 기업의 활동-육진이)를 허가한 대통령령 또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생명공학) 집단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특정한 식물들을 수집해오라고 하여 매우 값싸게 사들이고 있다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 식물들의

건조된, 또는 신선한 형태로의 시장 가격은 3-5페소 또는 킬로그램 당 0.11-0.19달러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식물은 '바나바', '삼봉', '바야바스', '다몽 마리아', '짜양구밭' 등 여러 가지로, 농촌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들이며 일상적인 질병들을 치료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들이다. 이 식물종들이 특정 집단에 의해 전유되고 개발되어 그 집단의 소유물이라 선언되면 다른 이들은 접근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국가의 도구로서 군사주의

지주, 정부와 해외 투자자들은 사기, 속임수의 방법이나 군부대, 경찰이나 용병을 고용하여 무력을 사용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던 네그로스오리엔탈에 있는 땅이 목초지로 전환되는 사례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또 다른 전략은 전환 대상 토지를 점거하고 있는 농민들을 범죄화시키는 것이다. 레이페의 산이지드로에서 한 재판관은 농민들이 자신의 땅에 심은 코코넛 500개를 수확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농민들을 기소했다. 이 농민들 중 대다수는 여성들이었고, 아이들도 여성들을 따라 감옥에 수감되었다. 모순적인 것은 이 농민들이 토지소유증서 보유자였다는 것이다.

여성농민들의 대응: 행동과 투쟁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농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많은 이들은 자신의 토지가 몰수되는 것에 저항하고 있다. 아미한(AMIHAN; 필리핀 전국농민여성연맹-웁긴이)의 회원인 타르타리아 지역 여성 농민들은 아귀날도의 전략에 저항하는 투쟁의 선도에 서있다. 이들은 불도저 앞에 서기도 하였고, 군부대에 대항하여 바리케이트를 지키기도 하였고, 교육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WTO의 해약에 저항하는 핵심적인 방법은 여성농민들과 가족들의 조직화이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든, 축출과 군사화에 저



태국 농민들, 생물종 다양성의 사수와 유전자조작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항하는 것이든 아니면 자가원조 체계와 노동력 교환을 통해 밭과 집에서 여성들의 노동 부담을 줄이는 것이든, 아미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조직화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다.

여성농민들과 농장 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들을 논의하고, 사안들에 대한 일관된 분석들을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통된 행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그들을 조직화하는 작업은 인내심이 필요한 전략이다. 조직이 없으면 여성농민들은 지주의 권위와, 여성들을 침묵하게 하고, 온순하고 순종적으로 만드는 봉건적 가부장적 가치의 희생자로 영원히 남겨질 것이다. 자신들만의 조직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집단적, 창조적 추진력을 해방시킬 것이다.

* 출처: 제3세계네트워크 (<http://www.twinside.or.sg>)

아시아·태평양 여성, 법률, 개발 포럼(APWLD)의 「포럼뉴스」 (1997년 7월 10권2호)

** 필리핀 전국여성농민연맹(AMIHAN) 집행위원장, 아시아 여성농민 네트워크(APWN) 간사

관·련·단·체

- 아시아 여성위원회 (CAW, Committee for Asian Women)
http://caw.jinbo.net e-mail: caw@mozart.inet.co.th
1980년 아시아 지역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권익 향상을 위해 조직된 단체
- 세와(SEWA, Self Employed Women's Association)
http://www.sewa.org
1972년 가난한 자영업자와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된 인도 여성노조
- 카리브 여성주의 연구 및 행동 협의회 (CAFRA, Caribbean Association for Feminist Research and Action)
http://www.cafra.org
60-70년대 카리브해 지역에서도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지역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1985년, 40명의 페미니스트들과 여성활동가들이 모여 카리브지역의 자치적 연합 조직인 CAFRA를 결성하게 되었다. 이들은 계급, 인종, 문화 등과 젠더의 관계를 연구하고, 이 지역 여성운동을 발전시키고, 정부와 관련 기구의 정책과 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여성들의 대안적 개발 (DAWN, Development Alternatives with Women for a New Era)
http://www.dawn.org.fj
경제적 남반구 여성학자들과 활동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세계화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와 분석을 행하고 있다. DAWN은 아프리카, 아시아, 카리브해, 남미와 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다른 NGO들과 연대하여 주 되게 '지구화 의 정치경제' '정치적 구조조정과 사회 변화' '성과 재생산 보건과 권리'에 대해 다룬다. 1984년 유엔의 '여성을 위한 10년'의 종료를 기념하는 국제회의의 전달에 결성되었다. 남반구 여성들이 제출한 선언문을 중심으로 모였으며, 나이로비에서 열린 NGO 포럼에서 여러 개의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 여성환경발전기구(WEDO, Women's Environment & Development Organization)
http://www.wedo.org
환경, 경제정책과 여성을 주제로 연구 프로젝트를 주로 하는 단체 미국 NGO
- 아프가니스탄 혁명적 여성연합(RAWA, The Revolutionary Association of the Women of Afghanistan)
http://www.rawa.org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과 사회정의를 위해 싸우는 독립적 여성 정치조직으로 1977년에 건설되었다.
- 아프가니스탄 여성연대 페이지 (Stop Gender apartheid in Afghanistan!)
http://www.feminist.org/afghan/intro.asp
아프가니스탄 탈리반의 반여성적 폭력 실태와 이에 맞선 캠페인 페이지로 미국 여성단체 페미니스트 머조리티(Feminist Majority)에 링크되어 있다.
- 여성 인신매매 근절 동맹 (CATW,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http://www.uri.edu/artsci/wms/hughes/catw
일국 또는 국제적으로 여성의 권리와 인권을 위한 활동, 특히 성적 착취로부터 여성의 해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UN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부 및 호주 지부를 두고 있다.
- 세계 여성 인신매매 근절 연맹(GAATW, 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http://www.inet.co.th/org/gaatw
GAATW는 1994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여성 이주와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 워크숍'에서 설립되었다.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의 네트워크이며, 아시아 지역에서 여성 이주, 인신매매와 성매매에 대한 캠페인,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과 법 개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 더바 마허라 사만와야 위원회(DMSC, Durbar Mahila Samanwaya Committee)

e-mail: sjana@giasc101.vsnl.net.in

인도 성매매 노동자들의 조직으로, 서벵갈 지역에서 3만 명의 성매매 노동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1995년 7월에 설립되어 40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성매매에 대한 법적 투쟁, 사회적 편견에 맞서는 각종 캠페인 및 보건과 교육 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1996년에는 벵갈 지역 성매매 노동자 회의를 개최하여 약 1,500명이 참가하였으며, 97년에는 전국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 엠파워(Empower)

<http://www.empowerwomen.org>

Empower는 Education Means Protection of Women Engaged in Recreation(교육은 레크리에이션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의 보호를 의미한다)의 약자이며, '힘을 부여하다'라는 뜻이다. 1985년 팻퐁 지역에서의 매매춘과 섹스 관광에 대한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지역 여성들을 위한 교육 및 생활 지원 단체로 변모하게 되었다. 현재는 생활 지원 센터 일 뿐만 아니라 매매춘 여성들의 공동체가 되었으며, 현재는 3개의 지부를 통해 방콕, 눈타부리와 치앙마이의 3만 명의 성매매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로 발전하였다.

- 지탕(Zi Teng)

email: ziteng@hkstar.com

'자주빛 등나무'라는 이름의 홍콩 성매매 노동자 지원 조직으로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성매매 노동자들에게 법적, 의학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 성매매 노동자 지원 프로젝트(SWOP, Sex Workers Outreach Project)

<http://www.swop.org.au>

SWOP은 1990년에 설립된 호주의 지역 기반 단체이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성병과 에이즈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성매매 노동자들을 위한 각종 건강, 안정, 정보제공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법률과 정책 개선을 위해 주 정부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http://www.iom.int>

국제이주기구는 각 국 정부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이주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며, 동시에 이주민들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한다. 여성 인신매매의 문제와 관련된 공식 조사 및 통계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 아동 성매매, 포르노그래피,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ECPAT INTERNATIONAL, End Child Prostitution, Child Pornography and the Traffick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http://www.ecpat.net>

ECPAT은 '상업적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네트워크'이다. 아시아 지역 관광산업에서 아동 매매춘에 대한 캠페인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점차적으로 전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아동의 성 착취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다루게 되었다. UNICEF, 각 국 정부들 국제 회의 및 캠페인 사업과, 각종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국제연맹(WILPF,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http://www.wilpf.int.ch> e-mail: wilpf@iprolink.ch

이 단체는 1915년 당시 유럽에서 발흥하던 전쟁에 반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윌프는 서로 다른 정치적 철학적 신념을 가진 여성들이 함께 모여 전쟁의 요인이 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요인들을 알려내고 제거하고 건설적인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성별 정의를 위한 여성회의(The Women's Caucus for Gender Justice)

<http://www.iccwomen.org>

이 모임은 국제 형사재판이 형성되고 이를 감시하는데 있어서 주류인권 단체들이나 NGO연합들이 여성의 시각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데 문제 의식을 갖고 생겨났다. 이 모임은 CICC(Coali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한 부분이며 자발적으로 운영된다. 이 모임은 국제형사재판이 독립적이며 센터적 시각을 견지할 수 있도록 세계의 여성인권 옹호자를 조직하며, 각국 정부대표, 주류인권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 여성 인권에 대한 대중적인 교육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발행일 2001년 6월 28일
2판인쇄 2001년 9월 19일
발행처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PICIS)
만든 사람들 세계화 반대 제3세계 여성팀
(엄혜진, 이현옥, 정주연, 최전승민)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4동 510-26
전화/팩스 02-866-8334
통신 나> picis 천> picis 참> picis (go picis)
홈페이지 <http://picis.jinbo.net>
이메일 picis@jinbo.net
인쇄 동진인쇄
가격 6,500원